

2017 사학과 봄 정기답사



답사지	경주
일 시	3. 30 ~ 4. 1
인솔교수	하 일 식

연세대학교 사학과

목 차

경주 외곽

1

- 영천 청제비 / 1
- 금척리 고분군 / 3
- 태종무열왕릉 / 5
- 김인문묘와 김양묘 / 7
- 분황사 / 9
- 황룡사지 / 12

경주 시내

17

- 동궁과 월지 / 17
- 경주 석빙고 / 20
- 월성 / 23
- 계림 / 26
- 첨성대 / 30

경주 시내의 고분

35

- 개관 / 35
- 노서동·노동동 고분군 / 38
- 대릉원 / 41
- 쪽샘지구 / 46

남산

50

- 서출지(書出池) / 50
- 남리사지(염불사지), 남산동 동서3층석탑 / 51
- 칠불암 / 52
-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 55
- 용장사지 / 56
- 상사암 / 59
- 삼릉골 / 59

감포읍

64

- 대왕암 / 64
- 감은사지 / 65
- 골굴사 / 69
- 기림사 / 71

국립경주박물관

74

- 개관 / 74
- 박물관 뜰의 유물들 / 74
- 신라역사관 / 77
- 신라미술관-미륵삼존불 / 85

답 사 일 정

	1일차	2일차	3일차
8:00	출발 (약 4시간 40분 소요예정)	아침식사 (숙소 제공)	아침식사 (숙소 제공)
9:00		점심식사 (김밥천국 김밥) 남산답사 통일전주차장 염불사지 동서삼층석탑 남산동 동서삼층석탑 칠불암, 신선암 용장골 용장사지 1) 마애여래좌상 2) 석조여래좌상 3) 삼층석탑 4) 삼륜대좌불 금오봉 상선암상사바위 삼릉골 1) 삼릉골마애관음보살입상 2) 냉곡석조여래좌상 3) 삼릉골선각육존불 4) 삼릉골선각여래좌상 5) 삼릉골석조여래좌상 6) 삼릉골마애석가여래좌상 7) 선각마애불 서남산 주차장	감포읍 일대 답사 대왕암 감은사지삼층석탑 굴굴사 기림사
10:00			
11:00			
12:00			
12:00	점심식사 (문경 휴게소)		점심식사 (무량식당)
13:00	경부고속도로→영천IC거쳐 영천 청제비		시내 답사 국립경주박물관
14:00	경부고속도로→건천IC거쳐 금척 고분군		귀경 (약 4시간 40분 소요예정)
15:00	태종무열왕릉		
16:00	주간 시내 답사 분황사 황룡사지 황룡사지 서편 사방불석탑		
17:00		저녁식사 (숙소 제공)	
18:00	저녁식사 (토함혜)	저녁 레크리에이션	
19:00	야간 시내 답사 동궁과 월지		
20:00	야간 시내 답사 월성 지구, 대릉원 일대		
21:00	대릉원 주차장에 집결		
22:00	숙소 도착 및 짐 정리		

경주 외곽

- | | |
|---------------|------------------|
| 1. 영천 청제비 / 1 | 2. 금척리 고분군 / 3 |
| 3. 태종무열왕릉 / 5 | 4. 김인문묘와 김양묘 / 7 |
| 5. 분황사 / 9 | 6. 황룡사지 / 12 |

1. 영천 청제비

영천 청제비(永川 淸堤碑)는 청못이라는 저수지의 축조 및 수축과 관련된 신라 양면비이다. 1968년 12월 신라삼산학술조사단에 의해 발견되어 보물 제517호로 지정되었다. 양면에 새겨진 비문은 각기 다른 연대와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면은 병진(丙辰)이라는 간지가 쓰여 있어 병진명이라고 부르고, 다른 면은 정원(貞元) 14년이라는 절대연대가 쓰여 있어 정원명이라고 부른다.

1) 병진명

병진명이 새겨진 때는 정확치 않으나 536년(법흥왕 23)으로 추정하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 병진명은 마멸이 심한 글자가 많으므로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¹⁾ 첫 번째는 연도를 적은 1행 부분이다. 다만 1행에서 연월일을 제외한 나

X	IX	VIII	VII	VI	V	IV	III	II	I	
衆	使	春?	尸	?	使	七	廣	鳩	丙	1
祀	伊	人	支	?	人	千	卅	弘	辰	2
利	尺?	次	小	?	喙	人	二	六	年	3
只	只	斯?	烏	小	安	刮	得	十	二	4
尸?	珎	尔	末	舍	尺	二	高	一	月	5
利	巴	利	珎	第	?	百	八	得	八	6
千	伊	乃	ㄸ?	迷	知	八	得	鄧	日	7
支	卽	利	小	利	大	十	上	九	?	8
徒	刀	內	烏	大	舍	方	三	十	?	9
尔		丁	一	烏	第		得	二	吉	10
利		十	支	第			作	得	大	11
							人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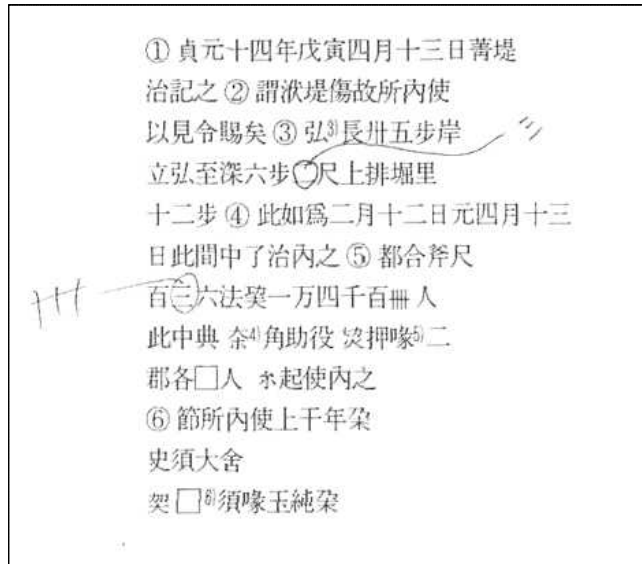
병진명 판독(하일식)

1) 하일식, 2005, 「신라 왕실 직할지의 초기 형태에 대하여」, 『동방학지』 1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4~15쪽.

머지 글자는 판독하기 어려워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저수지의 규모 및 동원된 인원수를 적은 2행에서 4행까지이다. 세 번째는 5행부터 마지막 10행까지인데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의 관등과 인명을 열거한 부분이다.

2) 정원명

정원명이 기록된 시기는 798년(원성왕 14)이다. 정원은 당 덕종의 연호이다. 정원명은 보존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몇몇 이체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글자를 온전히 판독할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은 청못의 수리가 완료된 연월일, 비문의 표제, 파손되어 수리하게 된 경위, 수리한 독의 규모, 수리 기간, 공사에 동원된 인원수, 공사 관련 책임자 등으로 되어 있다.²⁾



정원명 판독(하일식)

정원명에서 주목할 내용은 바로 소내사(所內使)에 관한 것이다. 소내사는 왕실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라 현지인으로서 왕실 소유지를 관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비문을 보면 소내사가 청못의 파손 사실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소내(所內)라는 말을 왕실에 직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청못이 있는 곳을 소내로 통칭하는 신라 왕실 직할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³⁾

또한 비문을 보면 부척(斧尺: 도끼를 사용하는 기술자) 136인과 법공부(法功夫: 국가에 소속된 일꾼) 등 1만 4,140명이 동원되었다. 이를 두고 전국에서 일시 동원한 인원으로 보는 연구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공사 관련자들의 숫자나 관등이 너무 단출하고 또한 청못이 있는 왕실 소유지에서 역부들이 주력으로 징발되며, 인접한 2군에서는 조역(助役)이 징발된 것으로 보아 연인원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⁴⁾ 한편 비문을 통해 진대등(典

2) 하일식, 1997, 「신라 통일기의 왕실 직할지와 군현제」, 『동방학지』 9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5쪽.

3) 하일식, 위의 논문, 9~12쪽.

大等)의 존재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소내사의 권한만으로는 인근 2군의 조역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사부의 차관인 진대등이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⁵⁾ 이러한 사실을 통해 왕실 직할지가 당시의 지배체제였던 군현제와는 별도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천 청제비는 신라 수리 관개시설의 실태, 통일신라시대의 중앙집권체제와 역 운영방식 등 신라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청제비 바로 옆에는 1688년(숙종 14)에 세운 ‘청제 중립비(靑堤重立碑)’가 있다. 원래 청제비에서 서쪽으로 5m 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청제비와 나란히 비각 안에 서 있다. 비문의 내용은 청제비가 1653년(順治 癸巳年)에 절단되어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최일봉(崔一奉) 등이 다시 맞추어 세웠다는 것이다. 이 청제중립비를 통해 청못과 청제비를 아끼는 사람들에 의해 귀중한 금석문이 소멸을 면하게 된 경위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조선시대의 수리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6 노진섭)

2. 금척리 고분군

1) 발굴조사 현황

사적 제34호로 지정된 금척리 고분군은 중앙으로 구 4번국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이 국도를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 25기와 29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⁶⁾ 금척리 고분군의 발굴은 1951년에 국도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인이 고분의 훼손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당해 12월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주 분관(현 국립경주박물관)에 사전조사를 지시하였으며 3기의 고분봉토 일부분의 훼손을 확인했다.⁷⁾

이후에는 1952년, 1976년, 1981년에 총 세 차례에 걸친 발굴이 이루어 졌는데 1952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기의 고분을 발굴하여 조사했고, 1976년에는 경주사적관리사무소 주관 하에서 국립경주 박물관이 고분군 사이의 밭에서 발견된 규모가 작은 고분들을

4) 하일식, 위의 논문, 14쪽.

5) 하일식, 위의 논문, 29쪽.

6)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경주 금척리고분군 종합정비기본계획』, 25쪽.

7)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신라고분 환경조사 분석보고서. 4, 정밀측정조사』, 176쪽.

조사하였다. 1981년에는 국립경주 박물관에서 유적 남쪽 민가의 상수도 공사 중에 누출된 적석목곽분 8기 석곽묘 3기 옹관묘 2기 토광묘 2기 총 15기의 고분에 대한 긴급 조사가 이루어졌다.⁸⁾

위의 세 차례의 발굴에서 금척리 고분군은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이 밀집된 지역임이 밝혀졌으며⁹⁾ 은제 허리띠, 유리구슬 목걸이, 금 귀걸이, 큰 쇠칼과 장식, 발걸이[鎧子] 등 총 41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81년에 조사된 고분 중 나무덧널 2개를 내부에 나란히 배치한 무덤이 확인되었는데 이 무덤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 무렵에 만들어졌으며 발굴된 부장품으로 추측해볼 때 부부의 합장무덤인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은제 허리띠(문화재청)



큰 쇠칼과 장식(문화재청)



발걸이(문화재청)



유리구슬 목걸이(문화재청)

8)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앞의 책, 13~14쪽.

9)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76쪽.

1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열 『경주 금척리 신라무덤』 마련”, 2014년 7월 11일.

2) 유적현황

4번 국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고분군이 동쪽에 있는 고분군보다 봉분이 더 크다. 고분의 형태는 대부분 원형봉토분이며 서쪽에 있는 48호분만이 표형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13호분 24호분처럼 단이 형성된 경우도 있다. 또한, 고분군 내에서 민묘들이 총 53기가 발견되었다. 이 민묘 중 28기는 고분에 있는데 특히 33호분은 민묘가 봉분의 중앙에 자리 잡아, 봉분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민묘는 연고가 있는 묘와 무연고의 묘 두 종류가 다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¹⁾

금척리 고분군은 국도 4호선과 주변 농경지, 민묘와 더불어 나무들이 자라면서 방치되었고 일부 고분의 기저부 및 봉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따라서 종합정비계획을 구상하고 현재 이를 진행 중이다.

3) 역사적 의의

경주시의 외곽에 있는 금척리 고분군에는 4~6세기 대에 사용된 여러 묘제형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심 묘제는 경주 시내의 고분들과 같은 적석목곽분으로 추정된다.¹²⁾ 무덤의 주인공들은 통일신라 이전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이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시내에 위치한 왕릉과 비교했을 때 규모와 출토된 유물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척리 고분군에서는 은제 대금구가 출토되었지만, 순금관은 출토되지 않았다. 출토품들이 무덤 주인공의 지위와 여러 가지 특색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때, 금척리 고분군은 앞으로 진행될 시굴 및 발굴조사로부터 경주 시내의 왕릉과는 다른, 이곳에 조영한 집단(왕족 및 귀족)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여러 정보를 보여줄 것이다.¹³⁾ (13 천문 송민수)

3. 태종 무열왕릉

1) 무열왕릉

태종 무열왕릉은 신라 제29대 왕 태종 무열왕 김춘추(604~661)의 무덤이며 경주시 서악동에 있다. 밑바닥 지름이 약 37m, 높이는 약 8.8m에 이르는 무열왕릉은 신라 중대

11)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앞의 책, 25~26쪽.

12) 위의 책, 103쪽.

13) 위의 책, 166쪽.

전기의 능원 형식을 하고 있으며, 서악동 중고기 전기 왕릉 군이 있는 능선의 말단부 아래 평지에 능원을 조성한 산지 근접형의 모습이다.¹⁴⁾ 무열왕릉의 능형은 당 태종의 소릉으로 대표되는 당 능원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이전 시기 배례공간 정도만 조성됐던 것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전술했듯이 태종무열왕릉은 전(傳)효공왕릉을 이어 능선의 말단부에 근접한 평지에 축조됐으며 전면에 상석이, 다시 그 전면의 좌측에 능비가 있고 그 앞에 배장분 2기가 배열된 독립능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태종무열왕 김춘추 자신이 외교업무를 주관하면서 적극적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금의 수정을 거치는데, 태종 무열왕릉이 능선의 말단 가까이 축조된 것은 능체를 산체로 여긴 당의 제도를 수정해 전통적인 능 축조 방식을 따르면서도 산체에 가깝게 위치시키고자 함이었다. 또한, 이는 후대 신라 왕릉의 입지와 축조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¹⁵⁾

태종 무열왕은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의 아들이며 선덕여왕대부터 관료로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다. 때문에 진지왕의 폐위 이후 김춘추의 집안은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내려앉았지만, 그러한 한계를 넘어 진덕여왕의 사망 이후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또한 태종무열왕은 즉위 후 뛰어난 외교 능력을 보였는데, 당과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2) 무열왕릉 근처 4개의 봉분

태종무열왕릉 서쪽에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봉분 4기가 남아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관해 이 네 개의 봉분 중에 진흥, 진지 왕릉 등의 중고기 왕릉들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풍수지리와 봉분의 규모로 봤을 때 왕릉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과거, 김정희는 이들을 신라 왕릉이라고 비정하며 현안왕릉, 문성왕릉, 진지왕릉, 진흥왕릉으로 고증했다. 강인구(2000)는 이 4개의 봉분을 각각 1호부터 법흥왕릉, 진흥왕릉, 진지왕릉, 김용춘의 묘로 보았다.¹⁶⁾ 그는 무열왕릉과 가까이 있는 이 네 봉분이 한 능선 위에 일렬로 늘어선 점으로 보아, 혈연적으로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았고, 무열왕릉과 가까이 있으므로 따라서 무열왕과 가까운 선대의 왕들이 있는 무덤이라고 규정했다.¹⁷⁾ 반면 이근직(2006)은 진지왕릉, 진흥

14) 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15,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90쪽.

15) 김용성, 2013, 「신라 능원의 의의」, 『민족문화논총』 5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쪽.

16) 강재현, 앞의 논문, 180쪽.

17) 정연식, 2012, 「제왕의 별 북극오성을 형상화한 무열왕릉」, 『역사문화연구』 4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11쪽.

왕릉, 법흥왕비릉, 법흥왕릉으로 규정했다.¹⁸⁾ 또한 여기에 정연식(2012)은 이 네 개의 봉분을 무덤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종무열왕릉과 함께 북극오성을 지상에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무열왕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상징물이며 네 봉분을 주변의 무열왕릉과 연결하면 그 모습이 북극오성의 배치와 같고 이를 통해 제왕의 상징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네 개의 봉분이 각각 개별적인 무덤이 아니라 무열왕릉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¹⁹⁾ 이처럼 봉분의 피장자를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하고 학설들 또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3) 태종무열왕릉비

태종무열왕릉은 신라의 능묘 중 유일하게 피장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능에서 동북쪽으로 60m가량 떨어져 있는 위치에 태종무열왕릉비가 있는데, 이 비의 귀부에는 ‘태종무열왕지비’라고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의 글씨인 양각돼 있다. 태종무열왕릉비는 그 서풍 또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후의 전범이 된 태종무열왕릉 비액(碑額)의 서풍은 이후 3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다. 태종무열왕릉 비액의 서풍은 문무왕릉 비액과 김유신묘 비액을 거쳐 여말선초기까지 서풍의 역사적 전통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⁰⁾

태종무열왕릉비는 국보 25호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비신은 없어지고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있다. 귀부는 길이 약 3.33미터, 폭 2.54미터, 이수의 높이 약 1.1미터로 이뤄져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던 비들은 당의 영향을 받았는데, 거북 모양을 한 받침돌과 용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비신 위의 머릿돌이 그 특징이다. 태종 무열왕릉비는 이러한 비 양식의 최초 원형이다.

(16 김홍준)

4. 김인문묘와 김양묘

1) 김인문묘

김인문은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고 문무왕의 동생이다. 김인문은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하여 사람들이 추허(推許)하는 신라를 대표할만한 지식인이었다.²¹⁾ 그는 당에 7회 왕래

18) 강재현, 앞의 논문, 180쪽.

19) 정연식, 앞의 논문, 3~4쪽.

20) 진복규, 2007, 「태종무열왕릉 비액 연구」, 『慶州文化研究』 9,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28쪽.

하였고 당에 22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당나라에 주재해 있는 신라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²²⁾ 김인문은 당에 머무르며 대당외교를 전담하며 신라에 도움을 주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김인문은 소정방의 부사령관으로 출정하였고 664년에는 당의 지시로 웅진 취리산에서 의자왕의 아들 부여릉과 화친의 맹약을 맺었다.²³⁾ 668년 당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도 참가했었다. 이후 신라와 당이 옛 백제의 영토를 두고 충돌하였을 때 잠시 감옥에 투옥되었다. 또 당에 있던 김인문을 일방적으로 신라왕에 임명했다.²⁴⁾ 김인문은 32대 효소왕 3년 66세의 나이로 당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당의 고종이 몹시 슬퍼하며 김인문의 유해를 신라에 보내어 그 예를 갖추었다.

김인문의 묘는 무열왕릉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김인문 묘의 진위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한데 김인문의 묘가 아니라 김유신의 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비가 있었지만 현재 비신은 없고 귀부만 남아있다. 1931년 서악서원 보수 때 김인문 묘비의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묘비의 내용만으로 김인문의 묘라고 확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무열왕릉과 김인문 묘의 진위가 분명하다면 이 부근이 무열왕의 가족묘지였다고 추측된다.²⁵⁾

2) 김양묘

김양은 태종 무열왕의 9세손이다. 신라에서는 36대 혜공왕 때부터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되었는데 42대 흥덕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또 다시 치열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때 가장 유력한 왕위 후보였던 김제릉과 김균정 사이에 왕위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때 김양은 김균정의 편에서 싸우다 다리에 화살을 맞고 도망쳤고 김균정은 죽임을 당했다. 왕위 쟁탈전에서 아버지(김균정)를 잃은 김우징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 장보고와 손을 잡았다. 왕위 쟁탈전에서 김제릉의 편이었던 김명은 회강왕(김제릉)을 치고 스스로에 왕위에 올랐으나, 이 사건은 김우징과 김양에게 다시 왕위계승전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²⁶⁾ 김우징과 김양은 장보고의 군사력에 힘입어 반란을 지휘했고 결국 승리하였다. 우징은 왕위에 올랐고 이 때 김양은 군사권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신무왕(김우징)이 왕위에 오른지 3달 만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자 김양은 그의 아들 문성왕을 보필하고 스스로 권력을 잡았다. 김양은 857년 (문성왕 19)에 죽었다.

21) 『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仁問.

22) 권오찬, 2000, 『신라의 빛』, 글밭, 119쪽.

23) 하일식, 1999, 『경주역사기행』, 그린글, 147쪽.

24) 하일식, 위의 책, 147쪽.

25) 권오찬, 앞의 책, 118쪽.

26) 손홍호, 2003, 「9世紀 前半 新羅의 政局變化와 金暉의 政治活動」, 『역사교육논집』 30, 역사교육학회, 72쪽.

삼국 사기에 따르면 문성왕은 김양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서발한을 추증하였고 부의와 장례를 모두 김유신의 구례에 따라 하게 하였다.²⁷⁾ 또 태종 무열왕릉에 배장하였는데 이는 김양이 무열왕 후손 중에 최고 공신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며, 현안왕 자신의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⁸⁾ (13 남궁윤)

5. 분황사

1) 분황사 개관

황룡사와 담장을 사이로 하는 분황사(芬皇寺)는 선덕여왕 3년(634)에 건립되었으며 고승 원효와 자장이 거쳐간 절이다. 643년에 자장이 당나라에서 대장경의 일부와 불전을 장식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귀국하자 선덕여왕은 그를 분황사에 머무르게 하였다. 원효는 이 절에 머물면서 「화엄경소」, 「금광명경소」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또 원효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설총은 원효의 유해로 소상을 만들어 이 절에 모셔두고 죽을 때까지 공경하였다. 경덕왕 때 희명의 다섯 살 난 아이가 갑자기 눈이 멀자 아이를 안고 천수대비 앞에 가서 '도천수대비가'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부르면서 빌게 하였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술거가 그린 관음보살상 벽화가 있었다고 하며, 경덕왕 14년(755)에는 무게가 30만 6,700근이나 되는 약사여래입상을 만들어서 이 절에 봉양하였다.

역사가 오랜 분황사에는 다수의 유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몽골의 침략과 임진왜란 등으로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은 분황사에 둘러놓은 어른 키만한 담장 위로 석탑의 윗부분만이 보이는 자그마한 절이 되었다. 현재 분황사 경내에는 분황사 모전석탑과 화쟁국사비부, 삼룡변어정이라는 우물이 있으며, 석등과 대석 같은 많은 초석들과 허물어진 탑의 부재였던 벽돌 모양의 돌들이 한편에 쌓여 있다. 1965년 분황사 뒷담 북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우물 속에서 출토된 불상들이 경주박물관 뜰에 늘어서 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634)에 '成'되었다는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선덕여왕의 즉위와 함께 창건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분황사 모전석탑도 선덕여왕의 조성의지에 의한 산물로 인식했다. 그러나 문헌의 '成'은 사찰의 제반시설이 완전히 정비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찰건립의 계획과 준비기간, 그리고 공정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진평왕의 집권말기 무렵에 분황사의 건립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발굴

27) 『三國史記』 卷第四十四 列傳 第四.

28) 손흥호, 앞의 논문, 174쪽.

조사 결과 분황사의 사역이 황룡사의 68% 정도로 추정되어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사찰의 건립 시기와 여왕을 뜻하는 ‘분황(芬皇)’이라는 사찰명은 이 사찰이 진평왕 후반기의 여왕후계체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진평왕의 집권 후반기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이 재개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일 뿐만 아니라, 후계구도 문제는 후사가 없었던 왕실의 권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진평왕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왕권을 통해 ‘성골남진(聖骨男盡)’이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여왕 후계구도를 확립시켰다. 하지만 진평왕 말기에 발생한 ‘석품의 모반사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여왕체제에 반하는 세력들이 정국의 표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실은 전륜성왕(轉輪聖王) 관념과 미륵신앙을 도입하여 여왕 후계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여왕체제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왕실사원을 건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분황사의 건립은 여왕 후계구도에 대한 왕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2) 모전석탑

안산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높이 9.3m의 석탑이다. 국보 제30호로 지정되었다. 분황사 창건 당시 만들어진 석탑이 임진왜란 때 반쯤 파괴되었는데, 조선시대에 이 절의 중이 수리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욱 파손시켜 1915년 다시 수리를 하였다. 1915년 일본인들이 해체, 수리할 때 2층과 3층 사이에서 석함 속에 장치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되었다. 이때 발견된 병 모양의 그릇, 은합, 실패와 바늘, 침통, 금은제 가위 등은 경주박물관에 있다.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7층 혹은 9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기단은 한 변 약 13m, 높이 약 1.06m로 크기가 제각기 다른 막돌로 쌓았다. 밑에는 상당히 큰 돌을 쌓았고 탑신 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진다. 기단 위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동물 한 마리씩 네 모퉁이에 배치하였는데, 동해를 바라보는 곳에는 암사자, 내륙으로 향한 곳에는 숫사자가 있다. 1층 네 면에는 입구가 열려 있는 감실을 만들어 놓았고, 입구 양쪽에는 인왕상이 있다. 이 인왕상은 모두 반라이며 옷 무늬가 각기 다르다. 전체적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신단계 막강한 힘을 느끼게 하는 조각으로 7세기 삼국시대의 조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황사 모전석탑 양식의 기원을 찾는 문제는 신라석탑의 발생과 연관해 중요한 과제다. 지금까지 이 탑이 외형적으로 전탑과 유사하다는 특징 때문에 그 기원을 중국의 전탑에서 찾았지만 다음과 같이 간다라 스투파의 특성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모전석탑은 탑신에 비해 훨씬 넓게 확장된 방형의 기단형식을 가진다. 넓게 확장된 기단의 형식은 목탑은 물론 중국의 탑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방형의 기단이 주로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기단 위에 올라가 신앙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간다라 스투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경향은 간다라 스투파의 전반적인 형식적 특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면의 감실형식에서도 인도 스투파의 특성을 볼 수 있다. 탑신에 폐쇄된 형식의 감실을 조성하여 불상을 안치하는 형식은 인도에서 지방마다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화되었으며 이후 동남아시아의 불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석사자상의 공간 구성적 면모가 스투파의 특징을 닮았다. 불탑에 사자상을 배치하는 경우는 간다라와 남부인도의 스투파에서도 볼 수 있다. 분황사탑도 스투파처럼 원래 4구의 사자상이 배치되었다가 후에 탑을 수축(修築) 또는 개축(改築)하면서 2구가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면감실 앞에 놓여있는 대석도 인도의 스투파 형식과 유사하다. 분황사의 대석은 남인도 스투파의 기단 사면에 다섯 개의 기둥을 열을 지어 세워 놓은 것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 탑은 중국의 전탑보다 오히려 간다라 스투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이 탑의 외형적 특징이 전탑과 유사한 것은 이미 중국에서 보편화된 방형불탑의 유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은 “해로를 통한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들어온 인도 석탑의 양식과 종래의 목탑 건축술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²⁹⁾

분황사는 여왕후계구도의 정당성과 여왕의 정통성, 그리고 성골왕실의 지배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내외에 함께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립되었다. 또한 이 탑의 형식적 특징을 통하여 이 탑이 간다라 스투파의 형식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신라왕실이 인도에 대한 동경과 자신들의 지배체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분황사의 불탑형식으로 모전석탑을 채택하던 사정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이 탑은 불탑이라는 종교적 의미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기념비적 성격으로 조성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3) 화쟁국사비부(碑趺)

고려 숙종 때 원효에게 화쟁국사(和靜國師)를, 의상에게 원교(圓敎)국사의 시호를 내렸

29) 박경식, 2013,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0~192쪽.

다. 아울러 관련된 절에 비를 세워 그 공덕을 길이 보존하게 하라는 어명이 있었다. 그 후 고려 명종 때 원효 스님이 출가한 절인 분황사에 「고려분황사화쟁국사비(高麗芬皇寺和靜國師碑)」를 세웠으나, 지금은 비석은 없어지고 귀부만 분황사 모퉁이에 서 있다. 이 추사의 글씨는 이 귀부에 새긴 글씨며, 글의 끝 월자는 趺 부자의 이체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추사가 1817년 그의 나이 32세 때 무장사 비편을 찾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을 때 새긴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의 靜 정자는 靜 쟁자를 잘못 알고 새긴 것으로 추측된다.

4) 삼룡변어정

분황사석정 또는 삼룡변어정이라고 하는 이 분황사의 우물은 신라시대에 만든 것이다. 우물의 겉모양은 팔각이고 내부는 원형이다. 외부의 팔각모양은 부처가 가르친 팔정도(八正道)를 상징하며 내부의 원형은 원불(圓佛)의 진리를 상징한다.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에 따르면 이 우물에는 세 마리의 호국용이 살고 있었는데, 원성왕 11년(795)에 당나라의 사신이 이 우물 속에 사는 용을 세 마리의 물고기로 변하게 한 뒤 가져갔다. 원성왕이 사람을 시켜 쫓아가서 빼앗아 우물에 놓아주고 다시 살게 하였다. 그 후 삼룡변어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남아있는 신라 우물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우수한 것이다. (16 서흥인)

6. 황룡사지

1) 황룡사 개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경주 월성의 동쪽에 궁궐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계획을 변경해 절로 짓기 시작하여 17년 만에 완공했다.

14년 봄 2월에 왕이 담당 관청에 명하여 월성(月城)의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황룡(黃龍)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서 [계획을] 바꾸어 절로 만들고 이름을 황룡(黃龍)사(寺)이라고 하였다.³⁰⁾

30) 『三國史記』 卷第四「新羅本紀」第四 眞興王 十四年. “十四年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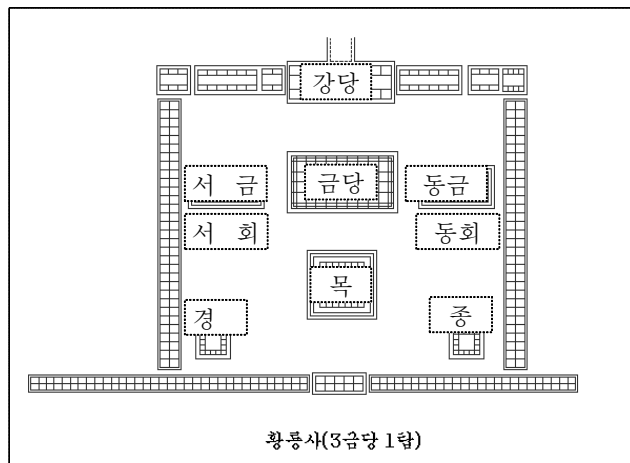
황룡사는 645년 완공된 구층 목탑까지 하면 무려 93년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신라의 3가지 보물³¹⁾ 중 2가지인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이 있는 신라의 중심지이다.

또한 황룡사는 신라의 불국토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황룡사는 중고기 신라불교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황룡이 나타났다는 창건설화, 과거에 가섭불이 연좌하던 곳이라는 가섭불연좌석설, 문수보살의 현신이 자장에게 황룡사에 호국룡이 머물고 있으며 구층 목탑을 건립하라고 했다는 설화, 장육존상이 아유왕의 뜻에 따라 건립되었다는 등의 많은 설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³²⁾

또한 황룡사는 진흥왕의 왕권 강화 수단이기도 하였다. 진흥왕 재위 초기에는 법흥왕비와 이사부가 섭정을 했다. 12년간 지속된 섭정은 재위 초기의 기상이변과 잦은 전쟁, 법흥왕 때부터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흥왕 7년의 율령 반포 즈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궁궐의 건설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진흥왕의 친정체제 전환과 함께 궁궐은 황룡사로 건설 계획이 수정되었다. 친정을 시작하면서 왕위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얻고자 했던 진흥왕에게 황룡을 매개로 한 황룡사의 창건은 종교적 신성성, 사제권을 부여받아 정치적 권위 및 왕권 강화의 기틀을 세우는 즉위의례적인행위였으며, 이후 황룡사는 왕의 정치사상적 권력 강화의 기반이 되었다.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1238)에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소실되어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1976년부터 시작한 발굴조사에서 금동불입상·풍탁·금동귀걸이·각종 유리 등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높이 182cm에 이르는 용마루 끝머리 장식인 대형치미는 건물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황룡사 가람배치

31) 『三國遺事』卷第三「塔像第四」黃龍寺九層塔. 후에 고려 왕이 장차 신라를 치고자 하다가 곧 “신라에는 삼보(三寶)가 있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황룡사 장육상과 구층탑,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입니다”라고 하니 드디어 그 계획을 그쳤다.

32) 申東河, 2001, 「新羅 佛國土思想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소, 55~85쪽을 정리함.

2) 가람배치

황룡사의 가람조성은 4단계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로 내부를 삼분하는 원동, 서회랑이 있고, 작은 규모의 금당과 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창건가람(553~569), 두 번째로 점차 완성되어가는 신라시대 중건가람(584~645), 세 번째로 중루와 경루가 건립되며 증축된 통일신라시대 중건가람(754~통일신라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당이 축소되고 동, 서편 건물이 각기 3개 건물로 분립된 최종가람(고려)의 단계이다.

높지를 메워 지은 황룡사는 원래 중문·목탑·금당·강당이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1탑식 배치였으나, 장육존상과 목탑 등이 조성된 후 금당 좌우에 작은 금당이 배치되고, 탑의 좌우에 중루와 경루가 대칭을 이루어 배치되었으며 사방은 복도와 같은 회랑으로 둘러싸여있다. 전체적으로는 백제의 일탑식 가람배치에다 중앙 금당의 좌우에 동서금당이 놓인 1탑3금당식의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3) 삼존불상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남쪽에 큰 배가 하곡현(河曲縣) 사포(絲浦) 지금 울주 곡포(谷浦)이다. 예 정박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첩문이 있었는데 “서축(西竺)의 아육왕(阿育王)이 황철(黃鐵) 5만 7천근과 황금 3만 판 별전(別傳)에는 철 40만 7천근, 금 천냥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인 듯하다. 혹은 3만 7천근이라고 한다. 을 모아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이루지 못해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고 축원하여 ‘원컨대 인연이 있는 나라에 이르러 장육존용(丈六尊容)을 이루어라’라고 하고, 아울러 일불이보살상(一佛二菩薩像)의 모형도 실었다.” (중략) 그 금과 철은 서울로 옮겨와서 대건(大建) 6년 갑오 3월에 장육존상을 주성하여 한 번에 이루었다. (중략) 황룡사에 안치하였다.³³⁾

황룡사 금동장육삼존불상은 진흥왕 35년(574)에 ‘전륜성왕’으로 일컬어지는 인도 아육왕이 석가삼존불상을 만들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뜻을 신라에서 받든 것이라는 설화가 전해온다. 이 연기 설화는 전륜성왕을 표방한 진흥왕의 ‘불연국토(佛緣國土) 신라(新羅)’라는, 신라의 불국토설을 지지하는 설화로 해석된다. 또는 신라왕실에서 황룡사 장육삼존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아육왕상 신앙이 유행했던 남조의 ‘진(陳)’으로부터 재료를 구하였는데 이 때 함께 설화의 소재도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있다.³⁴⁾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은 오늘날까지 중금당지에 남아있는 거대한 3기의 대석을 통해 5m가 넘었다고 하는 그 장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대석들은 장육삼존상이 입상이

33) 『三國遺事』 卷 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丈六.

34) 崔聖銀, 2011, 「신라 黃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신라사학회』 23, 신라사학회, 235~298쪽.

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그 외형과 관련해서는 인도조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국적인 불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 북위나 동위양식을 따른 불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 인도풍의 아유타왕상에서 중국식으로 토착화가 진행된 단계의 형태의 불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⁵⁾

4) 황룡사지 구층 목탑

신인이 “황룡사 호법룡은 나의 장자로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에 가서 호위하고 있으니 본국으로 귀국하여 절 안에 9층탑을 조성하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중략~ 정관 17년 계묘 16일에 당 황제가 하사한 경전·불상·가사·폐백을 가지고 귀국하여 탑을 건립하는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선덕왕이 군신에게 의논하였는데, 신하들이 “백제에서 공장(工匠)을 청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에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서 백제에게 청하였다.³⁶⁾

황룡사지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12년(643)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의 권유로 선덕여왕이 백제의 장인 아버지를 청해 645년 완공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자장법사는 황룡사 구층 목탑이 여왕의 부족한 위엄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국론을 결집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⁷⁾ 구층 목탑의 건설은 또한 공덕을 세우고 그에 따른 불법의 보호를 받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각 층마다 주변 9개 적국(일본, 중화, 오월, 탁라, 웅유, 말갈, 단국, 여적, 예맥)을 상징해 이들의 침입을 막고자 염원했다.

구층 목탑은 완공된 후부터 1238년에 전소되기 이전까지 총 5번의 중수를 거쳤다. 825년 경덕왕 때 구층 목탑을 수리한 기록과 구층 목탑의 건탑 유래 등을 사리내함에 기록한 『찰주본기』가 도굴되었다가 회수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중이다. 그 외에도 장신구류, 사리장엄구류, 기명류 등이 심초석의 하부와 심초석 상부 사리공에서 발견되었다.

(16 유인회)

35) 崔聖銀, 위의 논문.

36) 『三國遺事』卷 第三「塔像第四」黃龍寺九層塔.

[경주 외곽 참고문헌]

영천 청제비

하일식, 1997, 「신라 통일기의 왕실 직할지와 군현제」, 『동방학지』 9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하일식, 2005, 「신라 왕실 직할지의 초기 형태에 대하여」, 『동방학지』 1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금척리 고분군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신라고분 환경조사 분석보고서. 4, 정밀측정조사』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경주 금척리고분군 종합정비기본계획』

태종무열왕릉

진복규, 2007, 「태종무열왕릉 비액 연구」, 『慶州文化研究』 9,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15,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정연식, 2012, 「제왕의 별 북극오성을 형상화한 무열왕릉」, 『역사문화연구』 4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김용성, 2013, 「신라 능원의 의의」, 『민족문화논총』 5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인문묘와 김양묘

『三國史記』

하일식, 1999, 『경주역사기행』, 그린글

권오찬, 2000, 『신라의 빛』, 글발

손흥호, 2003, 「9世紀 前半 新羅의 政局變化와 金暘의 政治活動」, 『역사교육논집』 30, 역사교육학회

분황사

박경식, 2013, 「분황사 모전석탑의 양식 기원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 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황룡사지

『三國史記』

申東河, 2001, 「新羅 佛國土思想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崔聖銀, 2011, 「신라 黃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신라사학보』 23, 신라사학회

김숙경, 2014, 「황룡사 중건가람배치 연구」, 『건축역사연구』 23-4, 한국건축역사학회

경주 시내

- | | |
|----------------|----------------|
| 1. 동궁과 월지 / 17 | 2. 경주 석빙고 / 20 |
| 3. 월성 / 23 | 4. 계림 / 26 |
| 5. 첨성대 / 30 | |

1. 동궁과 월지

동궁(東宮)과 월지(月池)는 2011년까지 안압지(雁鴨池, 경주 臨海殿址)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11년에 동궁과 월지로 바뀌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월지는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흠으로 못 안이 매몰되어 원래의 형태를 잃었다. 이 흠 위에 자라난 갈대와 부평초 사이를 기러기(雁)와 오리(鴨)들이 날아다녀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임해전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안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안압지를 최초로 연구한 후지시마 가이지로도 임해전지(臨海殿地)와 안압지를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동궁과 월지와 구분하여 서술하였다고 한다.¹⁾ 하지만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안압지 서쪽에 임해전 터가 있다고 서술하여 이곳이 안압지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²⁾ 또한 1975년부터 2년 동안 시행된 안압지 발굴조사로 대형 연못과 대형건물지군이 확인되었으며, ‘월지’명 유물과 ‘동궁’명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 안압지의 본래 명칭이 ‘월지’임을 알아내었다.³⁾

월지는 신라 천 년의 궁궐이었던 월성의 동쪽 동궁 터에 있는 동서 200m, 남북 180m의 범위에 총 면적이 4,738평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연못이다. 삼국사기 문무왕 14년 기록에 “2월에 궁궐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날짐승과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라고 나오는데⁴⁾ 이를 보면 월지는 문무왕 대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월지 관련 기사 중 헌덕왕 14년에 “동북아우 수종을 부군으로 삼고 월지궁에 들였다.”는 내용은 월지가 궁역에 포함되며 월지궁은 부군과 같은 지위를 가진 왕

1) 이희준, 2014, 『경주 동궁과 월지(慶州 東宮과 月池) 발굴조사보고서 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8쪽.

2) 『新增東國輿地勝覽』 21 慶尙道 慶州府.

3) 이희준, 앞의 책, 29쪽.

4) 『三國史記』 7 新羅本紀7 文武王 14年.

죽이 거쳐하던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다.⁵⁾

월지 안에는 크기에 따라 대도, 중도, 소도 세 개의 섬이 있다. 각 섬의 크기는 대도가 330평, 중도가 150평, 소도가 20평이다. 섬들의 배치는 단순히 미학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다. 대도는 물이 흘러드는 입수구 바로 앞에, 중도는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 바로 앞에 놓여 있다. 월지에 흐르는 물은 이곳에 설치된 석구를 통과하며 불순물이 걸러지고, 작은 폭포 모양의 수로를 거치며 연못으로 흘러내린다. 대도를 거치며 배수구로 향하는 물살은 중도에 이르러 급격한 흐름을 멈추게 된다.⁶⁾

그뿐만 아니라 섬은 월지가 개방성과 폐쇄성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게 한다. 직선 호안을 바라보다 곡선 호안으로 시야가 넘어갈 때 눈앞에는 섬만 보이게 된다. 이러한 폐쇄성은 다음 순간 시야에 들어오는 가장 긴 수경(水景)을 더욱 개방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또한 호안 전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반복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지루함을 없애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도록 한다. 이러한 개방성과 폐쇄성의 반복 때문에 월지는 하나의 큰 바다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에 월지를 바다로 생각하고 경관을 조성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었다.⁷⁾ 우리나라 해안 곡선을 닮은 듯한 월지의 돌출된 호안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⁸⁾ 이 주장은 또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월지 안에 만들어진 임해전이라는 전각의 뜻이 ‘바다에 접한 건물’이기 때문이다.⁹⁾

임해전은 월지 서편에서 확인된 건물에 속하는데, 삼국사기의 효소왕 6년 “9월에 임해전에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과¹⁰⁾ 혜공왕 5년 “봄 3월에 임해전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¹¹⁾, 그리고 경순왕 5년 “태조가 기병 50여명을 거느리고 수도 근방에 이르러 만나기를 요청하였다. 왕이 백관과 더불어 교외로 나와 맞이하고 궁으로 들어와 마주 대하며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예우하고 임해전에 모셔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¹²⁾ 등을 보면 임해전은 국가에 여러 일이 있을 때 연회를 베풀었던 곳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월지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동궁아일(東宮衙鑑)’명 자물쇠, ‘세택(洗宅)’명 목간, 토기와 각종 불상, 안압지 조경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종 철제 도구 등이 확인되어, 안압지 주변에는 『삼국사기』 잡지(雜誌) 직관조(職官條)에서 보이는

5) 이희준, 앞의 책, 같은 쪽.

6) 대구 MBC, 앞의 책, 36~42쪽.

7) 대구 MBC, 위의 책, 42~46쪽.

8) 대구 MBC, 위의 책, 48쪽.

9) 대구 MBC, 위의 책, 46쪽.

10) 『三國史記』 8 新羅本紀8 孝昭王 6年.

11) 『三國史記』 9 新羅本紀9 惠恭王 5年.

12) 『三國史記』 12 新羅本紀12 敬順王 5年.

동궁관(東宮官), 동궁아(東宮衙), 세택(洗宅), 월지전(月池典), 용왕전(龍王典), 승방전(僧房典), 월지악전(月池巖典) 등 주요 관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³⁾

동궁은 월지 서쪽에 있는 신라 왕궁의 별궁 터이다. 안에는 임해전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건물들과 정원이 있었다. 임해전은 931년 경순왕이 전횡의 침입을 받은 뒤, 고려 태조 왕건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으니, 군신들의 연회나 귀빈 접대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궁의 또 다른 기능은 왕자가 거처하는 곳으로써었다. 지금까지 동궁은 임해전, 안압지는 월지이므로, 월지궁은 동궁이자 태자궁으로 파악해 왔지만, 현재 동궁은 태자궁이지만 월지궁과는 별개라거나, ‘동궁’은 ‘동쪽에 있는 궁궐’로 태자궁일 수 없다는 논란도 있다.¹⁴⁾

대궁의 동쪽에 위치한 동궁은 현재까지는 태자가 머무는 궁궐로 보았다. 동궁은 태자궁¹⁵⁾ 또는 춘궁¹⁶⁾ 등으로 불렸고, 태자는 동궁관속을 거느리며 왕위 계승을 준비했다. 태자는 차기에 왕권을 잇는 권력자로, 여타 왕자와는 구별되는 존재였다. 따라서 동궁은 정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권력의 한 축을 이루었을 것이다.¹⁷⁾ 문무왕 때부터 태자 책봉이 거행되고 동궁 건립이 이뤄졌다. 문무왕 665년(문무왕 5) 왕자 정명을 태자로 책봉하고¹⁸⁾, 679년(문무왕 2월에 궁궐을 대대적으로 중수하고, 8월에 동궁을 창조하면서 내외 제문의 객호를 바로잡았다.¹⁹⁾ 그 뒤 752년(경덕왕 11) 8월에는 동궁아관을 설치하였다²⁰⁾. 삼국사기 직관지 끝에 동궁 관속으로 동궁아를 비롯해 9개의 관부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경덕왕의 왕권 강화정책의 하나로 추진했다고 한다. 더불어 804년(애장왕 5)에는 임해전을 중수하고, 동궁만수방을 지었다. 이름으로 보아 만수방은 동궁에 속한 태자의 장수와 관련된 직장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특히, ‘동궁’을 관칭한 것으로 보아, 동궁은 별도의 구역에 갖춘 ‘별궁’임을 추측할 수 있다. 동궁에는 태자와 태자비, 그의 가족들이 거처하는 전각이 있었고, 소속 관청 건물과 관속이 배정되었다.

정(叡)은 866년(경문왕 6)에 왕태자로 책봉되어 동궁에 머물면서, 다음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헌안왕 때에는 태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叡)의 태자 책봉 전에는 동궁은 비어 있었을 것이다. 또 정(叡)이 헌강왕으로 즉위해 정궁으로 옮

13) 이희준, 1984,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정부간행물센터, 별첨 도면.

14) 정동락, 2016, 「신라하대의 왕궁 거주자- 헌강왕·헌덕왕대를 중심으로」, 『西江人文論叢』 4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7쪽.

15) 『三國史記』 28, 義慈王 15年 2月; 19年 4月.

16) 『三國遺事』 3 興法3.

17) 정동락, 앞의 논문, 11쪽.

18) 『三國史記』 6, 文武王 5年; 『三國史記』 8, 神文王 卽位年.

19) 『三國史記』 7, 文武王 19年.

20) 『三國史記』 9, 景德王 11年; 『三國史記』 39.

긴 뒤에도 동궁에는 다시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헌강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태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뒤 동궁은 895년(진성여왕 9) 10월에 헌강왕의 서자인 요를 태자로 삼으면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²¹⁾

결론적으로 보면 동궁과 월지는 문무왕 대에 월지라는 연못을 만든 후 주변에 동궁을 설치하고, 그 안에 임해전을 만들어 국가 대사와 관련한 연회를 한 장소였을 것이다.²²⁾ 현재는 월지와 월지 서안에 접한 3동의 건물만 정자와 같은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16 박예진, 16 한지현)

2. 경주 석빙고

월성을 따라 건다보면 신라시대 유적 사이에서 조선시대의 유적을 발견할 수 있다. 경주 석빙고는 이름 그대로 돌로 지어진,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는 서울의 동빙고와 서빙고 외에도 지방에 여러 석빙고가 지어졌다. 현재 남아있는 석빙고는 북한에 위치한 해주 석빙고를 제외하면 모두 경상도 지방에 위치하는데, 경주 석빙고는 길이 18.8m, 너비 5.94m, 높이 4.97m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²³⁾

경주 석빙고는 입구 이맛돌에 ‘숭정기원후재신유추팔월이기개축’ (‘崇禎紀元後再辛酉秋八月移基改築’)이라 쓰여 축조된 연월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숭정은 명나라의 최종연호로서, 조선은 청이 건국되었음에도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숭정기원이 1628년이기에 그 후 두 번째 돌아오는 신유년을 찾으면 1741년이 된다. 석빙고 서측에 위치한 비문을 보면, ‘숭정기원후재무오’ 즉 1738년에 부윤 조명겸이 지었다고 적혀있다. 원래 석빙고를 지은 후 3년 뒤인 1741년(영조 17년)에 경주 석빙고는 지금 이 자리로 옮겨 고쳐서 지어졌다.

다만 이 ‘이기개축’이란 표현으로 인해 ‘지금의 석빙고가 과거 신라시대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시대부터 얼음 창고를 만들어 얼음을 저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삼국사기』 지증왕 편을 보면, “얼음을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구절이 있어, 빙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²⁴⁾ 그래서 경주 석빙고는 신라의 수도에 있기에 기록에 등장하는 신라시대의 빙고가 계속 존

21) 정동락, 앞의 논문, 12쪽.

22) 이희준, 2015,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보고서 I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1쪽.

23) 김왕직, 2013, 「현존 석빙고의 규모와 형식」, 『건축역사연구』 22-2, 한국건축역사학회, 57쪽.

24) 『三國史記』 4 新羅本紀4 智證王 6年.

재하다가 그대로 영조 17년에 옮겨져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 서빙고 서쪽 100m 지점에는 옛 석빙고 터가 남아있어, 이곳이 원래 석빙고가 있던 곳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그곳에 존재한 석빙고에 대해서, ‘이기개축’이란 표현이 다른 곳에서 옮겨 온 것이긴 하나 이것이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그 빙고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⁵⁾

경상도에 남아있는 나머지 석빙고의 축조연대와 구조는 경주 석빙고와 비슷하다. 특히 청도 석빙고는 경주의 것과 입지 조건과 구조가 같은데, 이 석빙고는 숙종 39년인 1713년에 지어졌다.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석빙고들도 모두 18세기 전반에 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구조 또한 경주 석빙고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²⁶⁾ 그렇기에 경주 석빙고는 신라 시대 유적이거나 그때의 빙고를 그대로 옮겨서 지었다기보다는 조선시대에 새로 지어진 석빙고를 다시 옮긴 것으로 봐야 한다.

경주 석빙고의 축조 위치를 살펴보면 이것이 언제 축조되었는지 그 전후관계를 알 수 있다. 경주 석빙고는 월성의 북측 성루를 가로질러 직사각형으로 놓여있다. 그리고 입구를 남쪽으로 내어 월성 아래 흐르는 남천에서 겨울에 얼음을 수급하기 쉽게 하였다. 이 석빙고의 설치로 인하여 월성의 성루는 절단되었다. 즉 월성의 성루 축조 이후에 석빙고가 지어진 것이다. 성루를 절단하면서 이곳에 석빙고를 지은 이유는 남쪽에 하천이 흘러 얼음을 수급하기 쉽고 성루의 경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빙고는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되는데, 이는 얼음에서 녹은 물이 바닥에 고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점 때문에 이곳에 석빙고가 지어졌다.²⁷⁾

경주 석빙고는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2~3m 정도 아래 위치한, 반 지하 형태로 만들어졌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공기의 대류현상을 활용한 것이다. 특히 경주 석빙고는 출입구 앞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ㄷ자 옹벽을 만들어 더운 공기가 쉽게 석빙고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²⁸⁾ 석빙고 외부에는 흙으로 유선형 봉분을 쌓아 열을 차단했고 잔디를 심어 태양의 복사열을 최소화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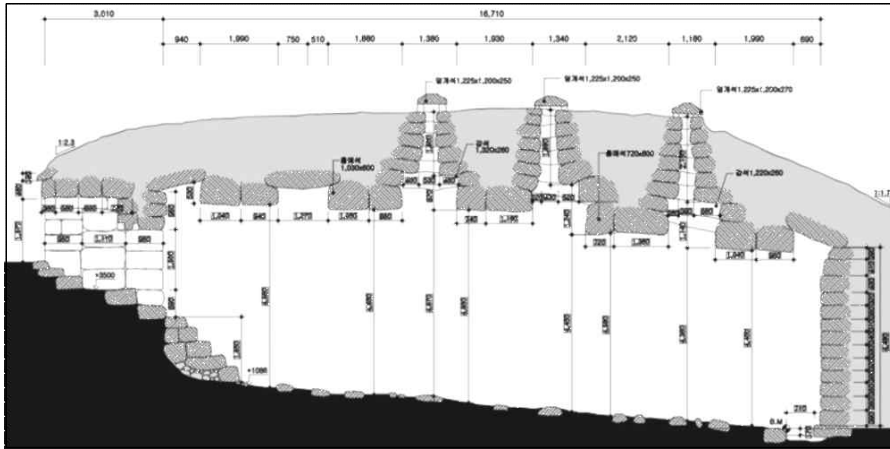
25) 秦弘燮, 1964, 「慶州 石氷庫의 築造年代」, 『이대사원』 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쪽.

26) 秦弘燮, 위의 논문, 12쪽.

27) 秦弘燮, 위의 논문, 3쪽.

28) 김상협, 2013, 「조선후기 석빙고 홍예구조와 조성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9-11, 대한건축학회, 184쪽.

29) 조국환, 1998, 「경주 석빙고의 여름철 실내환경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4-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51쪽.



경주 석빙고의 종단면(건축역사연구 22-2)

석빙고 내부에는 수직으로 벽을 세운 후, 그 윗부분은 홍예(虹蜺)구조로 조성했다. 홍예는 무지개로, 아치형 구조를 말한다. 내부에 얼음을 저장할 공간을 마련하면서 석빙고 상부에 쌓아진 봉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홍예구조로 축조된 것이다.³⁰⁾ 경주 석빙고는 5개의 홍예칸으로 되어있는데, 칸과 칸 사이에는 청판석을 놓아 지붕을 구성하였다. 청판석이 놓인 부분은 홍예칸보다 더 위로 솟도록 요철구조로 만들어 밖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그곳으로 빠지도록 하였다.³¹⁾ 특히 두 번째 홍예칸 다음부터는 청판석마다 환풍구를 만들어 여름철엔 뜨거운 공기와 습기가 빠지도록, 겨울철엔 냉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기구 위에는 개석(蓋石)을 두어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차단했다.³²⁾

석빙고의 바닥면엔 얼음에서 나오는 수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자갈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경사가 있어 흡수되지 못한 물이 가장 안쪽의 배수로로 흘러가게 되어있다. 조선왕조실록엔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할 때 풀과 짚 등을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석빙고의 구조적 냉방과 더불어 내부에 짚, 잡초 등을 두 겹게 덮어 녹지 않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경주 석빙고는 오늘날 내부가 식물에 의해 많이 오염되고 일부 파괴된 상태에서도 온도를 잘 유지해주었다. 특히 여름철 출입구가 열린 상태에서 외부와 내부의 기온을 비교했을 때, 내부의 평균온도가 외부보다 낮았다. 또한 외부보다 내부의 온도 일교차가 매우 적어, 실제 얼음을 저장했을 때도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경주 석빙고는 자연

30) 김상협, 앞의 논문, 181쪽.

31) 조국환, 앞의 논문, 51쪽.

32) 김상협, 앞의 논문, 183~184쪽.

33) 위의 논문, 183쪽.

환기구의 적절한 배치, 경사를 이용한 배수구의 이용과 흙과 돌의 열전도율 차이, 그리고 공기의 대류현상을 활용해 여름철까지 냉기를 보관할 수 있었다.³⁴⁾ (12 성민규)

3. 월성

월성(月城)은 신라 천 년의 역사를 함께한 왕궁이다. 월성은 경주시 인왕동 남산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문천(蚊川)이 반월상을 이룬 곳에 있다. 사적 제16호로 지정된 월성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파사이사금 22년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비록 월성이 금성과 함께 신라의 궁성으로 쓰이는 등 이것이 지닌 고고학적 가치는 엄청나지만 아직도 월성의 내부구조나 각 궁궐의 위치 등에 대해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월성에 대한 첫 번째 고고학적 조사는 1915년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졌다.³⁶⁾ 이 조사는 월성의 서·남벽 일부를 절개하여 그 토층에 대해 분석한 것이었다. 월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그 후 중단되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의 월성동북편의 문지 조사를 필두로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후 10차에 걸쳐 월성해자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³⁷⁾

그 결과, 어느 정도 월성의 구성과 확장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파악은 가능했다. 월성의 전체적인 개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성이나 공간 확장뿐만 아니라 월성 내부에 대한 조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하 레이더 탐사의 방법을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월성에 축조된 다양한 건축물의 위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건축물들의 위치에 대한 예상일 뿐, 월성 내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연구자들끼리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1) 월성의 정문

월성 내부에 구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부터 지속해서 시행된 지표 조사와 더불어 최근 지하 레이더 탐사의 성과는 월성 내부의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월성 내부 궁궐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1979년 경

34) 조국환, 앞의 논문, 57쪽.

35) 『三國史記』1 新羅本紀1 婆娑王 22年.

36) 양정석, 2010, 「신라 월성의 공간구조 인식에 대한 재검토」, 『사충』 7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쪽.

37) 위의 논문, 1쪽.

주조적발굴조사단에 의해 정면 1칸, 측면 2칸 규모의 문지가 확인된 월성 북동향의 문지가 처음이다.³⁸⁾

월성의 내부 건축물에 대한 위치 논쟁의 근본에는 과연 월성의 정문을 무엇으로 삼을 지에 대한 물음이 있다. 각 궁궐 건축물들의 위치는 위계질서를 갖고 있으므로, 어디가 정문인지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어느 문지를 정문으로 삼을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보통 동아시아 궁궐의 정문은 남쪽을 향해 있으나, 월성은 남쪽에 절벽과 문천이 있어 문을 만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도 월성 정문 위치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충분하다. 현재까지 발견된 11개의 문지 중, 문천에 있는 월정교를 지나 존재하는 남벽의 문을 정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신문왕의 납비례를 거행할 때 왕비가 북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기사와 성덕왕대에 백관에게 북문에 상주하도록 하교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북문을 정문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서쪽에 있던 2층 문루 형태의 귀정문을 정문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문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위치를 예측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2) 월성 해자와 목간

월성이 신라의 궁성 역할을 하였다면 당연히 왕궁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월성 해자(月城壕字)는 월성의 방어를 위해 성벽 밑부분을 따라 축조된 방어용 도랑시설이다. 월성 남쪽에는 이미 문천이 흐르고 있었기에 남쪽을 제외한 3면에 토광식(연못형) 해자가 축조되고, 후에 석축식 해자로 개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쪽의 연못형 해자는 좁고 긴 3개의 연못을 서로 연결해 놓은 형태인데, 이러한 해자가 월성 초기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삼국시대가 해자의 설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월성의 경관 변화 시기는 해자를 기준으로 크게 해자가 만들어지기 전, 만들어진 후, 그리고 없앤 후,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해자가 축조되기 전, 월성 외곽 지역에는 삼국시대 초기 유구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연못형 해자는 대략 5세기에서 7세기에 이것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졌는데³⁹⁾, 이 때 해자를 축조하면서 파낸 흙은 성벽을 더 높이 쌓는데 활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다른 지역과 월성을 분리시켜 왕의 권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연못형 해자의 필요성은 상실되었고, 왕궁의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에 연못형 해자를 메우고 화강암을 평면 삼각형으로 정연하게 쌓

38) 위의 논문, 4쪽.

39) 5세기에서 7세기가 당시 삼국통일 과정의 시기와 겹쳐있어 삼국간의 대결구도뿐만 아니라 외세인 당나라와의 접촉도 빈번하였기에 당시 궁성을 방비해야 할 시대적인 상황과 겹쳐있다고 볼 수 있다.

은 석축형 해자를 만들어 방어용에서 조경용으로 역할을 탈바꿈하였다.⁴⁰⁾ 원래 월성 동쪽에서 해자로 입수되던 물은 새로 축조된 안압지로 입수되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자 시굴 결과 월성 동쪽 '나'구역에서 1기, 북쪽 '다'구역에서 5기의 해자 시설이 발견, 연구되었다.⁴¹⁾ 즉 연못형 해자가 신라의 삼국통일과 부지에 대한 수요로 석축형 해자로 바뀌어 매립된 것이 월성해자의 일대기다.



월성해자 주변지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편, 월성 북편의 '다 구역' 필 층에서는 월성해자목간이 출토되었다. 목간(木簡)은 주로 문서 작업이나 전달할 글 등을, 일정한 모양으로 깎아 만든 나무 또는 대나무 조각에 적은 것을 말한다.⁴²⁾ 월성해자 목간의 연대는 연못형해자의 존속시기와 관련지어 6~7세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주로 간단한 메모를 기록한 것이나 물품에 무엇인가를 붙이는 부찰목간이 많이 출토된 8세기 안압지 목간과 달리, 월성해자목간은 다면·다행목간을 이용해 작성한 문서의 비중이 크다. 8세기에 비해 6~7세기는 종이의 보급도가 상당히 낮았기에 당시 중요 정보를 다루는 관청장부나 행장문서를 전부 목간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상황이 안압지 목간과 월성해자 목간의 차이를 만든 것이다.⁴³⁾ 그렇기에 안압지목간과 월

40) 정용조·박주성·심우경, 2010, 「경주 월성의 해자(壕字)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한국전통조경학회, 1쪽.

41) 위의 논문, 5쪽.

4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고고학사전』, 목간 부분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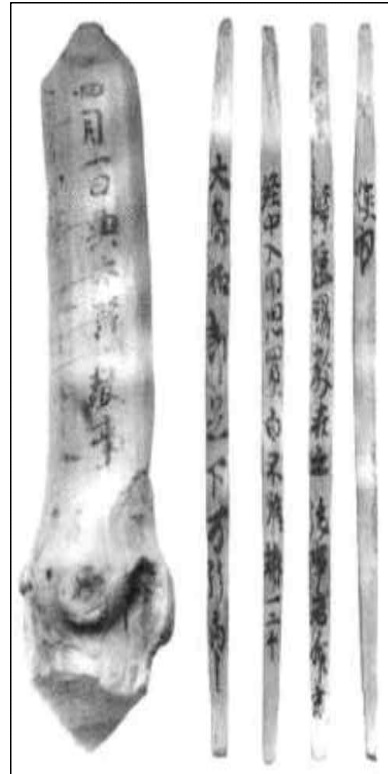
43) 윤선태,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28쪽.

성해자목간을 서로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은 시대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어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된다.

월성해자목간은 단면이 4각형인 고(觚)형식의 다면 목간이나, 별다른 가공 없이 나무의 껍질만 벗긴 채 사용한 원주형(圓柱形)의 비중이 매우 높다.⁴⁴⁾ 월성해자목간의 중요 문서로는 의약 관련 목간과 왕경 6부 관련 목간, 문서행정 관련 목간이 있다. 그 중 하나인 167번 목간은 상단부만 남아있고 하단부는 파손되었는데, 담고 있는 내용이 天雄(천웅), 蒿(芎)(와거), 二兩(이량)과 같은 약재와 그 약재를 어느 정도 투여해야 하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약 관련 목간으로 추정된다.⁴⁵⁾

한편, 안압지목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약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신라 6~7세기에 이미 약재의 효용과 조제량을 숙지한 의약처방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진흥왕 순수비의 ‘약사’라는 관직 역시 이러한 추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⁴⁶⁾

(16 권민수)



원주형목간과 다면목간
(국립문화재연구소)

4. 계림

1) 계림(鷄林)

계림은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있는 숲이며 사적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탈해왕 9년(65) 3월 밤⁴⁷⁾, 왕이 금성의 서쪽 시림(始林)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은 후, 다음날 호공을 보내어

44) 위의 논문, 9쪽.

45) 위의 논문, 12~13쪽.

46) 위의 논문, 17쪽.

47) 『三國遺事』 1 奇異2 金闕智 脫解王代에서는 시림에 알지가 출현한 사실을 서기 60년 8월 4일로 기록하

살피게 하였다. 그곳에는 금색의 작은 껍질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그 밑에서 흰 닭이 울고 있었다. 왕이 그 껍질을 가져와 열게 하였는데, 그 안에는 자태가 뛰어난 작은 사내 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아이를 거두어 길렀고,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략이 많기에 이름을 ‘알지(閼智)’⁴⁸⁾라고 하였다. 또한 그가 금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金)’이라고 하였다. 후에 시림을 계림으로 고쳤고, 국호 또한 서라벌(徐羅伐)에서 계림으로 바꾸어 불렀다.⁴⁹⁾ 이후 기림이사금 10년(307)에 다시 신라(新羅)로 국호를 바꾸었으며⁵⁰⁾, 지증마립간 4년(503)에는 사라(斯羅), 사로(斯盧) 또는 신라로 불리던 국명이 신라로 고정되었다.⁵¹⁾ 그러나 계림은 그 후에도 신라 국호 또는 경주를 가리키는 말로 종종 사용되었다.⁵²⁾

김알지의 탄생설화를 통해서 김씨 집단이 외부에서 이주해 온 집단임을 추측할 수 있다. 신라 초기 김씨 집단은 박씨와 석씨 집단과 함께 이사금 자리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내물마립간(356~405) 이후에는 김씨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왕위를 독점 세습하였다. 또한 경주에 거대 고분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던 마립간의 시기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김씨 집단이 기마풍습과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 북방에서 경주로 이동해 왔다고 보기도 한다.⁵³⁾

계림의 입구에는 조선 순조 3년(1803)에 세운 6각형의 계림비각이 있다. 그 안에는 계림의 내력과 함께 김알지의 탄생설화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계림의 북쪽에는 침성대가, 서쪽에는 내물왕릉과 경주 향교가, 남쪽에는 찬기파랑가 향가비가 있다.⁵⁴⁾

2) 황남동 대형건물지

1968년, 월성, 동궁과 월지, 침성대, 계림 등을 포함한 황남동, 인왕동 일대를 경주동부 사적지대로 묶어 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월성, 동궁과 월지, 침성대 등은 각각 별개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지정된 사적들 사이에 있는 미지정 구역에서도 계속해서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한 데 묶어 보호·관리한 것이다. 그중 황남동 대형건물지는 계림의 북쪽, 침성대와 계림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신라 왕족들의 중심생

여 『三國史記』와 차이를 보인다.

48) 『三國遺事』 1 奇異2 金閼智 脫解王代에 따르면, 알지는 우리말로 어린아이(小兒)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49) 『三國史記』 1 新羅本紀1 脫解王 9年 3月.

50) 『三國史記』 2 新羅本紀2 基臨王 10年.

51) 『三國史記』 4 新羅本紀4 智證王 4年 10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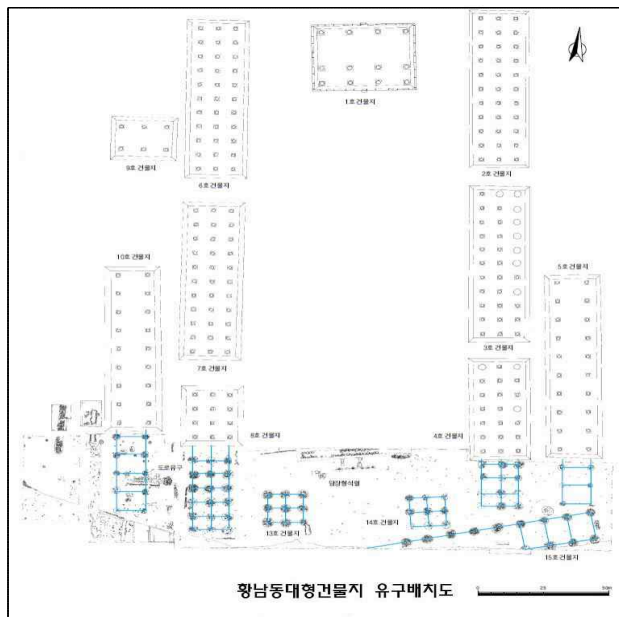
52) 채미하, 2016,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신라사학보』 37, 신라사학회, 13~15쪽.

53) 하일식, 1999, 『경주역사기행』, 그린글, 57쪽.

54) 정선중, 2007, 『경주여행 109選 : 경주시내, 동남, 서북, 남산, 주변의 명소』, 혜지원, 30쪽.

활권으로 추정되는데, 신라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⁵⁵⁾

황남동 대형건물지 유적은 월성해자와 그 주변부를 발굴 조사 하던 중 발견되어 1988년 10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는 12동의 집터가 하나의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에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유적의 남쪽 일대가 사유지였기 때문에 원활



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후 2006년 8월부터 2007 2월까지 114일간 계림 북편 건물지의 남쪽 미조사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2차 조사를 시행하였다.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황남동 건물지 유적에서 총 15호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그중 서쪽 외곽에 있는 11호와 장축 방향이 다른 12호와 15호를 제외한 12개의 호(1~10, 13, 14호)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적심 건물지에서는 개(蓋), 수막새, 완(盤), 배(杯), 접시, 고배(高杯), 호(壺), 대부완(臺附盤), 수키와, 암키와, 특수키와, 유개대부완(有蓋臺附盤), 활석제추편(滑石製錘片), 漁網錘(어망추), 활석제용기(滑石製容器) 등이, 담장형 석렬에서는 대부완, 개, 수막새, 단경호(短頸壺), 유개단경호(有蓋短頸壺)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지표에서도 토기류 31점, 와전류 39점, 기타(토구, 비녀 등) 6점 등 모두 76점이 채집되었다.⁵⁶⁾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유물은 지진구(地鎭具)⁵⁷⁾라고 할 수 있다. 지진구는 건물을 지을 때, 안전과 영속을 위해서 지신(地神)에게 비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지진구는 7세기 중반 이후 경주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까지 월지, 왕경유적, 천관사지 등 7세기 이후 건물지 유적에서 대체로 발견되었다.⁵⁸⁾ 이

5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9, 『경주 황남동 대형 건물지-황남동 123-2번지 유적-』, 10쪽.

5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9, 위의 책, 26~62쪽.

5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황남동 건물지에서는 10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개대부완, 15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개대부완, 담장형 석렬에서 출토된 유개저단경호를 지진구로 보았다.

58) 최은아, 2007, 「경주지역 건물지의 진단구(鎭壇具)에 관한 고찰: 매납방법과 봉납물을 중심으로」, 『文物

들은 황남동 건물지의 담장형 석렬에서 5개의 토기를 일렬로 묻거나 신라왕경에서 ‘十’자 형태로 묻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하지만 일명 ‘군집매납’의 형태로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⁹⁾

그러나 10호 건물지 적심에서 출토된 인화문유개함, 일명 ‘황칠지진구’의 경우 적심 내부에 단독으로 묻혀있



황남동 대형건물지 발굴

으며, 내용물 또한 황칠액과 같은 특이한 물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황칠은 여러 종류의 공예품 표면에 바르는 도료의 한 종류로서, 황칠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정제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 칠해진 실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황칠액의 발견은 비록 황칠이 칠해진 유물이 아닐지라도, 황칠액이 신라인들에게 중요한 도료로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다.⁶⁰⁾

한편, 황남동 유적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건물지군의 성격이다. 건물의 배치 정연하며 건물지 사이에도 중복된 동이 없기 때문에 황남동 건물지군은 동시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토된 유물들로 보아 삼국통일 후인 7세기 말 이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1988~1989년 조사 당시의 조사보고서에서는 황남



10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인화문토기. 내부에 황칠 안료가 고체상태로 굳어 그릇의 바닥에 붙어 있다(문화재청)

연구』 11,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동아시아문화연구소, 62쪽.
98) 위의 논문, 51쪽.
6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9, 앞의 책, 80쪽.

동 건물지를 권위건축물, 즉 관청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⁶¹⁾

그러나 2차 조사를 마친 뒤 2006년 11월에는 문화재청 보도자료에 관청건물이라는 추정을 철회하고 ‘신라 왕실의 제의시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⁶²⁾ 그리고 3년 뒤 간행된 보고서에서는 ‘신라 궁성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건물’로 파악하였다. 건물지가 월성과 고분군 중앙부에 있으며 건물이 조성된 후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10호 건물터 적심석 근처에서 인화문 유개대부완으로 만든 지진구 안에 황철이 발견되었다는 점들을 그 근거로 들었다.⁶³⁾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황남동 건물지가 신라의 종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⁶⁴⁾, 이에 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5 김진송)

5. 침성대

침성대(瞻星臺)는 경주시 반월성 동북쪽에 위치한 유적으로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었다. 침성대는 2단으로 된 사각형의 기단부, 원통형으로 된 27단의 몸통부, 여기에 다시 2단으로 된 사각형의 상단부로 이뤄져 있다. 총 높이는 약 9.5m에 달하며, 몸통부 맨 아랫부분의 둘레는 16m, 맨 윗부분의 둘레는 9.2m이다. 4m 정도의 높이에 사방 1m 남짓한 창이 있고, 안에는 12번째 단까지 잡석과 흙으로 채워져 있다. 19~20번째 단과 25~26번째 단에는 우물 정(井)자 형태의 장대석이 걸쳐져 있고, 그 끝부분은 몸통부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꼭대기는 편평한 바닥이 아니며 입 구(口)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부 면적은 약 1.5평에 달한다.

침성대는 흔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헌에 남은 정보는 침성대가 세워진 지 거의 650년이 지난 뒤 편찬된 『삼국유사』에 “선덕여왕 때에 돌을 다듬어 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과 “내물마립간의 능이 점성대(占星臺) 서남쪽에 있다.”는 기록이 전부⁶⁵⁾이다. 침성대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침성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문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침성대의 기능과 형태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61)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월성해자 발굴조사서 I』, 90쪽.

62) 문화재청 보도자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실 제의시설 발견”, 2006.11.22.

6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9, 앞의 책, 86쪽.

64) 정연식, 2011, 「통일신라의 종묘 건축과 종묘제의 변화」, 『한국사연구』 153, 77~125쪽에서는 건물지의 위치, 건물의 건립 시기, 건물의 배치 구조를 근거로 하여 황남동 건물지를 종묘로 추정하고 있다.

65) 정연식, 2009,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여러 학설 비판」, 『역사와 현실』 74, 한국사연구회, 300쪽.

1) 전통적 해석

첨성대가 천문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20세기 초 한국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학자들의 영향이 컸다. 1904년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의 동양건축사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첨성대가 구조적으로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아마도 천문관측소일 것이라고 언급하여 첨성대를 처음으로 학문적 관심의 영역에 끌어들였다. 이어서 기상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가 1909년에 첨성대를 둘러본 뒤 8년 뒤에 첨성대에 관한 최초의 학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⁶⁶⁾ 와다 유지는 첨성대의 윗부분에 목조 건물이 있었으며 그 안에서 관측기계를 사용하여 천체를 관측했다고 생각했다. 루퍼스 역시 첨성대가 오로지 관측 작업을 위해 건설된 구조물 가운데, 완전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견해⁶⁷⁾를 밝히며 천문대설에 힘을 실었다.

첨성대가 천문대로 추정된 데에는 그 이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첨성대'라는 이름 자체가 '별을 바라보는 대'라는 뜻으로 천문관측 시설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소간의(小簡儀)를 올려놓고 천문을 관측하는 관천대(觀天臺)를 첨성대라고 부르기도 했다.⁶⁸⁾ 그러나 첨성대를 천문대로 보기에는 구조상 의아스러운 점이 많았다. 관측공간인 정자석 부분이 높고 좁아서 매일 밤 오르내리면서 천체를 관측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또한 바닥은 고르지 않고 정자석의 네 변도 진북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서 좌표를 설정하여 천체의 위치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⁶⁹⁾

이처럼 관측천문대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첨성대에 대한 여러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64년 과학사학자 전상운은 첨성대가 그림자로 절기와 시간을 관측하기 위한 규표(圭表)라는 설을 제기하였다.⁷⁰⁾ 규표설에 따르면 첨성대는 어느 방향에서 보나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므로, 계절과 태양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림자를 측정하여 시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절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끝부분이 대개 선을 이루는데, 첨성대는 정자석의 북쪽 변을 선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선이 정확한 동서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 절기를 판별하기 불편하다는 점⁷¹⁾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수학자 김용운이 첨성대가 고대 천문학·수학의 이론서 『주비산경(周髀算經)』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천문대의 부속 건물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첨성대

66) 위의 논문, 299~300쪽.

67) 이문규, 2004, 「논문 : 첨성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첨성대 해석의 역사와 신라시대의 천문관」, 『한국과학사학회지』 26-1, 6쪽.

68) 정연식, 2009, 「첨성대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여러 학설 비판」, 『역사학보』 204, 361쪽.

69) 위의 논문, 396쪽.

70) 정연식,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301쪽.

71) 정연식, 「첨성대의 기능과 형태」, 397쪽.

의 각 부분의 길이를 표시하는 값에는 1:3의 원주율, 3:4:5의 구고법 등 수학적 비례가 숨겨져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 불완전한 근삿값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천문대설은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게 되자 조금씩 목소리를 낮추었다. 침성대가 과학적 관측을 위해 세운 상설천문대라는 주장을 접고, 그 대신에 하늘에 이변이 일어났을 때만 정치적, 종교적 의미의 간단한 관측을 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침성대가 순수한 천문 기상 관측대라는 천문대설 이외에, 침성대를 하나의 종교적 상징물로 보는 종교제단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⁷²⁾ 동양사학자 이용범은 침성대가 불교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수미산을 모방하여 만든 제단이라는 설을 내놓았다. 아래로부터 점점 좁아지다가 위로 솟은 침성대가 수미산을 형상화한 제단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수미산을 닮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침성대와 수미산은 평면 형태도 다르고 입면 형태도 다르다⁷³⁾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 최근의 학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침성대를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조경학을 전공한 조세환은 침성대가 위치한 장소와 그 주변 환경, 침성대의 조영 형식과 의미 등에 주목하여 침성대가 외래적인 불교문화가 아닌, 토착신앙에 기반을 둔 조영물이라 주장했다. 또한 침성대가 우물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됨으로써 우물이 가졌던 여성 관련 이미지를 통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려는 의미를 발현,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⁷⁴⁾ 침성대의 형태가 우물, 특히 김유신의 집이었다는 재매정(財買井)과 모양이 비슷하다⁷⁵⁾는 점은 이용범에 의해 이미 오래 전에 지적된 바 있는데, 한국고대사 전공자 김기홍 역시 우물에 주목하여 침성대를 '우주 우물'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신라인들은 우물을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터널로 여겼으며, 특히 제석천이 다스리는 하늘의 세계인 도리천에 다가가기를 소원했던 선덕여왕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도구로써 침성대를 쌓았다고 한다.⁷⁶⁾

우물설은 침성대가 선덕여왕의 성스러운 두 조상인 박혁거세, 석가모니의 탄생과 아울러 성조황고(聖祖皇姑) 선덕여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삼위일체 성탄대(聖誕臺)'⁷⁷⁾였다는

72) 최중석, 2007, 「신라 미륵신앙과 침성대」, 『普照思想』 27, 207쪽.

73) 정연식, 「침성대의 기능과 형태」, 397쪽.

74) 이문규, 앞의 논문, 15쪽.

75) 정연식,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306쪽.

76) 이문규, 앞의 논문, 15쪽.

77) 정연식, 「침성대의 기능과 형태」, 324쪽.

해석으로 심화되었다. 정연식은 선덕여왕이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에 대한 귀족세력의 반감과 민심의 이반을 막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왕 미화 작업과 신성화 작업의 목적으로 첨성대를 건립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물 모양의 첨성대를 싯다르타 태자를 낳은 마야부인의 몸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우물 유구에서 발견되는 복숭아는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향아리는 자궁으로서 첨성대 우물은 바로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첨성대는 성골의 시조 석가모니의 탄생을 뜻한다. 부푼 아랫부분은 마야부인의 엉덩이이고 중간에 작은 구멍은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서 첨성대는 우물에 마야부인의 몸을 겹친 것이 된다.⁷⁸⁾ 정연식은 첨성대와 비슷한 모양의 나정이 문무왕 때에 이르러 허물어졌기에 오랜 시간 동안 첨성대가 우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선덕여왕 이후 성골의 대가 끊겨 첨성대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우리에게 "난해한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첨성대에 대한 여성학적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최명숙은 첨성대가 '성조황고'를 표상하는 천문대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여신상징들이 합쳐진 우주적 신정체⁷⁹⁾라 보았다. 우물이자 선돌인 첨성대는 천문관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첨성대의 여신은 선사시대 위대한 여신에 뿌리를 둔, 신라 최고의 시조신이자 왕권의 수여자로서 신라의 정체성이기도 했던 '서술성모'라는 것이다. 또한 7세기 전반 신라에 최초의 여왕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여신상들이 출현한 것을 근거로, 이러한 상들이 최초로 여성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종교·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천관녀가 첨성대의 여사제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첨성대와 천관녀는 서로를 비취주는 상호반사적 관계였다는 해석을 내놓았다.⁸⁰⁾ (신학 11 한은지)

[경주 시내 참고문헌]

동궁과 월지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희준, 1984,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정부간행물센터

이희준, 2014,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보고서 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희준, 2015,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보고서 I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78) 정연식,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380쪽.

79) 김명숙, 2016, 「첨성대, 여신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32-3, 한국여성학회, 139쪽.

80) 위의 논문, 181쪽.

정동락, 2016, 「신라하대의 왕궁 거주지- 헌강왕·헌덕왕대를 중심으로」, 『西江人文論叢』 45,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경주 석빙고

『三國史記』

秦弘燮, 1964, 「慶州 石氷庫의 築造年代」, 『이대사원』 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조국환, 1998, 「경주 석빙고의 여름철 실내환경 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4-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김상협, 2013, 「조선후기 석빙고 홍예구조와 조성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9-11, 대한건축학회

김왕직, 2013, 「현존 석빙고의 규모와 형식」, 『건축역사연구』 22-2, 한국건축역사학회

월성

『三國史記』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윤선태,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양정석, 2010, 「신라 월성의 공간구조 인식에 대한 제검토」, 『사총』 7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정용조·박주성·심우경, 2010, 「경주 월성의 해자(垓字)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계림

『三國史記』

『三國遺事』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월성해자 발굴조사서 I』

하일식, 1999, 『경주역사기행』, 그린글

정선중, 2007, 『경주여행 109選 : 경주시내, 동남, 서북, 남산, 주변의 명소』, 혜지원

최은아, 2007, 「경주지역 건물지의 진단구(鎭壇具)에 관한 고찰: 매납방법과 봉납물을 중심으로」, 『文物研究』 11, 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재단 동아시아문물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9, 『경주 황남동 대형 건물지-황남동 123-2번지 유적-』

정연식, 2011, 「통일신라의 종묘 건축과 종묘제의 변화」, 『한국사연구』 153, 한국사연구회

채미하, 2016,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신라사학보』 37, 신라사학회

침성대

이문규, 2004, 「논문 : 침성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과학사학회지』 26-1, 한국과학사학회

최종석, 2007, 「신라 미륵신앙과 침성대」, 『普照思想』 27, 보조사상연구원

정연식, 2009, 「선덕여왕과 성조(聖祖)의 탄생, 침성대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여러 학설 비판」, 『역사와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정연식, 2009, 「침성대의 기능과 형태에 관한 여러 학설 비판」, 『역사학보』 204, 역사학회

김명숙, 2016, 「침성대, 여신상이자 신전」, 『한국여성학』 32-3, 한국여성학회

경주 시내의 고분

- | | |
|-------------|----------------------|
| 1. 개관 / 35 | 2. 노서동, 노동동 고분군 / 38 |
| 3. 대릉원 / 41 | 4. 쪽샘지구 / 46 |

1. 개관

고분(古墳)이란, 옛 무덤이라는 뜻으로 좁은 의미에서 옛날의 왕이나 왕족 또는 귀족과 같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무덤을 말한다. 즉, 고분은 그 속에 금, 은 또는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든 부장품을 함께 묻고 무덤의 내, 외부 시설물을 커다랗게 만들어 일반 서민의 무덤과는 구별되게끔 축조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묘 가운데 총(塚)이란 거대한 봉분을 가진 무덤으로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덤을 말한다. 총의 이름은 무덤의 형상이나 출토된 대표 유물과 연관하여 짓는데 천마총, 금관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총과 달리 피장자의 신분이 밝혀진 것을 능(陵)이나 묘(墓)라고 부른다. 이 중 능은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 왕 등과 그 배우자의 무덤을 의미한다. 반면 묘는 일반인부터 최고 귀족에 이르는 인물의 무덤을 말한다. 무열왕릉, 문무대왕릉 등이 능에 해당되고, 김유신묘, 김인문 묘 등이 묘에 해당된다.¹⁾

경주 지역 고분의 피장자는 고대 사회의 권력 구조로 미루어 볼 때 왕, 왕족, 귀족들로 추정되며 현재 경주 지역의 무덤 가운데 왕(비)릉은 38기, 왕족, 진골 귀족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묘는 4기,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은 8기이다. 특히, 신라의 왕릉은 동일한 능묘제도 아래 획일적으로 조성되었던 고려 및 조선시대와 달리, 국가가 발전하면서 왕권의 확장이나 내세관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신라가 건국 당시부터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고대국가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소국과 같은 단계를 거친 후 고대국가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²⁾

1) 김용성, 2009,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19~22쪽을 주로 참고함.

고분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피장자의 신원, 축조방식과 같은 고고학적 사실을 통해 당시 신라의 사상, 문화, 예술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 체제의 변화, 대외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무덤 유적의 배치를 통해 경주의 도읍지 형성과정까지 추론할 수 있다.

신라 고분의 묘제는 목관묘, 목곽묘, 적석목곽분, 석실분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묘제의 변화는 단순히 고분 축조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분 축조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요소들의 종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① 목관묘(木棺墓) 단계

목관묘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후 150년 무렵에 나타나는 신라 고분의 첫 번째 단계이다. 땅을 파고 그 안에 동검(세형동검), 동경과 함께 주검을 넣은 목관을 넣고, 그 주변에 토기나 철기를 부장한 후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이 시기의 무덤은 아직 크기가 크지 않고, 각 무덤은 부장품이나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목관묘 형식의 무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고 각 무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장품이 많은 무덤의 주인은 일정한 영역을 다스렸던 통치자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목관묘는 경주의 중심가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부장물의 상태가 양호한 무덤은 경주분지의 가장자리 골짜기들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2세기까지 경주 지역 전체를 통괄하는 세력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고, 주변의 몇몇 지역에서 세력을 모아 할거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데, 혁거세가 왕으로 등극할 무렵 6촌 세력이 “山間之谷(산간지곡)에 分居(분거)하고 있었다는 기록과도 연결된다.³⁾

② 목곽묘(木槨墓) 단계

기원후 150년 무렵부터 350년 무렵에 나타나는 목곽묘 단계에서는 목관묘보다 무덤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깊이가 얕아지면서 부장품을 넣는 공간을 갖춘 목곽이 발견되기도 한다. 목곽묘 단계에서는 땅을 파고 그 안에 목곽을 축조한 후 다시 주검을 넣은 목관을 매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로 주검을 매장하기도 한다. 이전 단계보다 철제 무기가 부장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아, 이 시기에 전쟁이 잦았으며 집단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커다란 무덤은 능선의 정상부에 자리 잡아 다른 작은 무덤과 구별되며 부장품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후기로 갈수록 커다란 부곽을 따로 만들어 각종 생활용구들을 넣기도 하였으며, 같은 목곽 안에 피장자를 모시던 시종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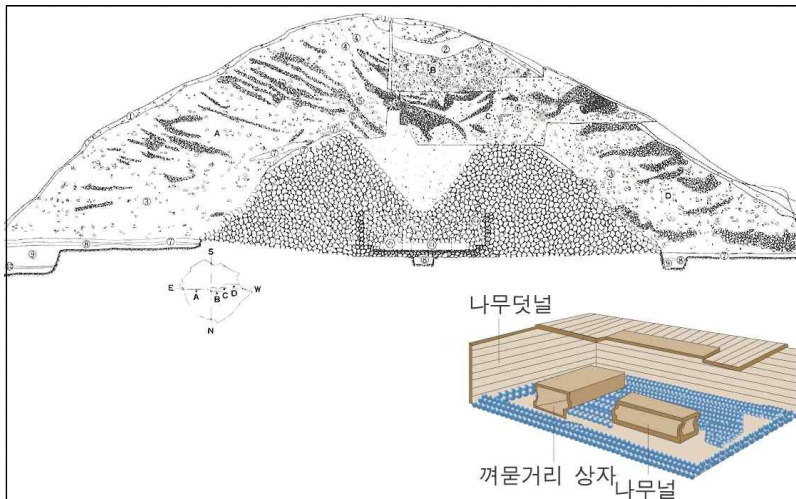
2)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15~17쪽을 주로 참고함.

3) 김용성, 앞의 책, 26~27쪽을 주로 참고함.

묻는 순장 풍습이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목곽묘 시기의 신라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경주와 주변 지역의 무덤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사로국이 지금의 경주시 정도의 영역을 다스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⁴⁾

③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 단계

적석 목곽분은 기원후 4~5세기에 경주에서 유행했던 무덤형식이다.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불리기도 하는 적석 목곽분은 목곽의 주위와 상부를 돌로 덮는 구조이다. 적석 목곽분의 축조는 대략 1차 봉토의 축성, 매장 및 적석, 2차 봉토의 축성의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차 봉토는 목관을 놓을 공간인 묘광(墓坑)을 파고 그 주변부에 흙을 쌓아 올라가면서 동시에 봉토의 둘레에 호석(護石)을 설치하는 과정이다. 그다음 묘광에 목곽과 부장품을 놓은 뒤 상부 적석의 과정을 통해 목곽을 봉한다. 마지막으로 적석이 된 상부를 포함한 무덤 전체를 다시 한 번 흙으로 덮는 과정이 이루어진다.⁵⁾



경주 시내 대릉원 구역의 황남대총, 천마총, 서봉총 등 당대 최대 규모의 무덤이 모두 이 형식에 포함되며, 부장품은 금관을 비롯한 다량의 금세공제품과 토기가 주를 이룬다.

이전 단계까지 최고 수장급의 무덤이 경주 주변에서만 발견된 것과 달리 가장 거대하고 발전된 형태의 적석 목곽분이 경주 중심권인 현 노동동, 노서동, 인왕동, 인교동 일대의 이른바 ‘대릉원 구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신라(사로국)가 경

4) 이근직, 앞의 책, 28쪽.

5) 김두철, 2009, 「積石木槨墓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문화』, 7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73~77쪽.

주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석실분(石室墳) 단계

석실분 단계에서는 율령의 반포, 불교의 영향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장례 풍습과 내세관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무덤의 양식이 적석목곽분에서 석실분으로 변화하면서 이전 단계처럼 거대한 봉분을 축조하고 많은 유물을 부장하는 묘제 관행이 더는 지속되지 않았으며, 왕릉의 위치도 평지에서 산기슭으로 옮겨갔다. 이 변화는 경주 중심부 지역의 도시 기능이 확대되면서 왕릉이 주변부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12지 신상을 장식한 호석과 왕릉구역 정면에 문무인석 사자상이 있는 호석 석실분이 나타난다. 이는 중국 당의 능묘제도를 본받은 결과로서 삼국 병합 후 전제 왕권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중국식 관제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⁶⁾

(15 이주연)

2. 노서동, 노동동 고분

1) 금관총

1921년 일제에 의해 발굴 조사된 금관총은 고 신라시대의 돌무지덧널무덤으로는 최초로 신라의 금관이 발굴된 무덤이다. 신라의 왕이나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나 명백한 주인을 알 수가 없어 ‘금관이 나온 큰 무덤’이라는 뜻으로 금관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2013년 금관총에서 출토된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을 보존처리하던 중 칼의 금속부분에서 이사지왕(奈斯智王)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칼에 새겨진 ‘이사지왕’이라는 호칭은 신라무덤에서 출토된 최초의 왕명(王名)이다. 그러나 ‘이사지왕’이라는 왕명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및 신라 금석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사지왕’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⁷⁾ 또한, 이사지왕의 실체뿐만 아니라 ‘금관총의 피장자가 이사지왕이 맞는지’, ‘칼의 주인이 이사지왕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금관총의 피장자가 곧 이사지왕이며, 이사지왕이 칼의 소유자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칼이 피장자의 신체 부위가 있는 목곽이 아닌 부장 궤에서 발견된 점을 보면 피장자와 칼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⁸⁾

6) 이창규, 2000. 「경주 고분으로 본 신라 1000년」, 『역사비평』 52, 279~302쪽.

7)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신라 금관총 출토 大刀에서 ‘奈斯智王’ 명문 확인”, 2013년 7월 3일.

8) 김재홍, 2014, 「金冠塚 출토 "奈斯智王"銘 大刀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 86을 주로 참고함.

2015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주관으로 금관총에 대한 정식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발굴로 금관총의 돌무지 구조가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일제의 조사에서 빠진 코발트색의 유리그릇 파편, 유리구슬, 은제 허리띠 장식 등 많은 유물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가장 큰 성과는 2013년의 발굴에 이어 또다시 ‘이사지왕도(余斯智王刀)’와 십(十)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칼집이 발견된 것이다. ‘余斯智王刀’는 말 그대로 ‘이사지왕의 칼’이라는 의미이고, ‘十’은 주술적인 의미라는 견해가 많다. 추가로 발견된 이 명문은 칼의 주인이 이사지왕이라는 의견의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다.⁹⁾



2) 금령총

금령총은 금관총에 이어 신라의 금관이 두 번째로 출토된 무덤으로 봉황대 바로 곁에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봉황대는 고 신라시대의 임금이나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경주에서 가장 높고 큰 봉분이다. 이 봉황대를 중심으로 주변에 모여 있는 신라 무덤들을 노동리 고분군으로 부르고 있다.

금령총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주관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 발굴 결과 금관총에 이어 금관이 발견되었으며, 금으로 만들어진 허리띠와 장식품, 백화수피로 만들어진 관모, 금구슬과 유리구슬이 달린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가락지, 신발 등 각종 금제 장식품과 다량의 토기, 칼 등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발굴된 토기 중 다리가 달린 배모양의 기마인물형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는 신라의 토기 중에서는 최초로 국보 제 91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유물 중에서 무덤의 주인을 밝혀주는 유물이 나오지 않아 금령총을 왕릉으로 부를 수 없었다.¹⁰⁾

3) 식리총

9)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금관총에서 또 다시 ‘余斯智王刀(이사지왕도)’ 명문 출토”, 2015년 7월 30일.

10) 조유전, 1996, 『발굴 이야기-왕의 무덤에서 쓰레기장까지, 한국 고고학 발굴의 여정』, 대원사, 245~249쪽을 주로 참고함.

식리총은 금령총과 동시에 발굴이 이루어졌다. 식리총은 노동동 고분군에 포함되어 있으나 흔적만 남은 상태이다. 식리총은 단일 봉토분으로는 봉황대 남쪽과 접해있고 금령총과도 동서로 마주한다. 식리총은 발굴조사 이전에 민가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봉분이 많이 파괴되었다. 식리총의 외형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약 6m, 밑지름은 약 20m 정도로 금령총보다 좀 더 크다.



식리총을 발굴한 결과, 금령총처럼 금관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신라시대의 돌무지덧널무덤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장식품과 허리띠 장식, 칠기그릇, 토기류 등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하지만 이 고분 또한 출토된 수많은 유물 중 무덤의 주인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물 중 금동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신발인 식리 한 쌍이 출토되어 식리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¹¹⁾ 식리총의 발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회석이 거행되었다는 점인데, 식리총이 헐리면서 놀란 피장자의 혼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서봉총

서봉총은 금관총과 금령총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신라의 금관이 출토된 무덤이다. 서봉총은 금관총과 서쪽으로 약 50m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쌍분이며 그 구조는 돌무지덧널무덤이다. 이 무덤의 발굴에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황태자가 참여하였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스웨덴의 한자표기인 서전(瑞典)의 ‘서’자와 출토된 금관의 테에 장식된 봉황(鳳凰) 3마리의 ‘봉’자를 합하여 서봉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서봉총에서는 신라의 금관뿐만 아니라 은합, 허리띠, 목걸이, 귀걸이 등과 같은 금으로 만든 장신구, 유리제품이나 토기 등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무덤의 주인을 명백히 알려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봉총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 중 ‘연수원년신묘삼월(延壽元年辛卯三月)’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 은합은 서봉총의 축조 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이다. 신묘년에 대해 그 시기를 ① 391년(신라 내물이사금 36년, 고구려 고국양왕 8년), ② 451년(신라 눌지마립간 35년, 고구려 장수왕 39년), ③ 511년(신라 지증왕 12년, 고구려 문자왕 20년)으

11) 위의 책, 249~253쪽을 주로 참고함.

로 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최근 연구¹²⁾에서는 고구려의 연호인 연수(延壽)가 적힌 은합이 신라 왕족의 무덤에 묻힌 것을 통해 고구려가 신라의 상위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내물이사금 시기에 고구려에 인질을 보냈던 것과 그의 뒤를 이은 실성이사금의 즉위 이후에도 고구려 세력이 개입한 것을 근거로 391년을 서봉총의 축조연대로 보았다.

한편, 서봉총의 남단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된 또 하나의 적석부가 있다. 이것은 남분으로, 1929년에 발굴되었으며, 발굴 자금을 낸 P. David의 이름을 따 데이비드총이라 이름붙였다. 따라서 서봉총은 2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붙어 있던 표형분(瓢形墓) 중 북분을 말하며, 서봉총이 먼저 축조된 후 데이비드총이 추가로 축조된 것으로 추측된다.¹³⁾

(13 형채우, 16 유현빈)

3. 대릉원

1) 황남대총

황남대총(皇南大塚)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고분이며 황남동 제98호분이라고도 한다. 신라가 남긴 수많은 고분 중에서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수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어 고대 신라의 사회문화상 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은 고분이다. 황남대총은 두 개의 봉토가 맞닿아 이어진 모양으로 북분과 남분으로 구성되는데, 지질조사 결과 남분이 북분보다 먼저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부장품과 무덤의 규모로 보아 신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북분에는 부인, 남분에는 남편이 매장된 부부 묘로 추정하는 의견이 주류이다.¹⁴⁾

북분과 남분은 각각 제작 시기와 피장자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이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남분의 피장자는 유골 감정을 통해 60세 전후의 남성임을 밝혔으나 그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다분하다.¹⁵⁾ 한편, 북분의 피장자가 금관을 착용한 데 반해, 남분 피장자는 금동관을 착용하고 있어서 남분의 묘주는 왕이 아닌 갈문왕일 것이라고

12) 신정훈, 2014, 「신라 서봉총의 은합 연대와 그 축조시기에 대한 신검토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국학연구론총』 13을 주로 참고함.

13) 위의 논문, 3쪽.

14) 박장식, 정영동, 2004, 「황남대총 남분 출토 칼과 창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한 신라의 철기제작 기술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금속재료학회지』 42, 대한금속재료학회, 307쪽.

15) 이주현, 2015, 「경주 황남대총 북분 주인공 성격 재고」, 『신라문화』 4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2쪽.

보는 비왕릉설이 있다. 그러나 남분을 왕릉으로 보는 왕릉설이 훨씬 우세한데, 그 이유는 무덤의 규모 때문이다. 마립간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주 중심고분군의 다른 무덤들과 비교했을 때 황남대총의 남분과 북분 모두 전장 120m, 높이 22.93m에 이르는 월 등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금관이 없다 하더라도 부장품들의 질과 양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고분으로 볼 수 있는 것 역시 주된 이유이다.¹⁶⁾ 다만 남분의 주인인 왕의 정체와 무덤 축조 시기에 대해 학계의 의견은 크게 ① 내물마립간(?~402)을 주인으로 보는 5세기 초 설과 ② 눌지마립간(?~458)을 주인으로 보는 5세기 중엽 설로 나뉜다.¹⁷⁾ 이외에도 피장자를 실성왕이나 자비왕 등으로 추정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한편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우선 북분의 피장자를 신라의 왕녀로 추정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북분에서 부인대(夫人帶)라는 명문이 새겨진 은제 과대가 발견되었고, 피장자가 남성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대도(大刀)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장자가 착용한 금제 과대의 대형요패가 남분 피장자와 대조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점, 직조에 사용되는 방추차형석제품이 출토되었으며 신라 시대 왕녀는 국가 직조산업의 상징이었던 점, 무덤에서 갑주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은 점, 출토된 소량의 무기류 역시 실전용이 아닌 점 또한 북분의 피장자가 여성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¹⁸⁾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분의 피장자 역시 남분과 마찬가지로 남성이라는 설도 제기된다. 부인대 명문이 새겨진 은제 과대는 피장자가 신체에 착용한 상태가 아니므로 묘주 측근 인물의 것임을 간과할 수 없으며, 피장자가 대도를 착용하진 않았으나 피장자 머리 쪽에 마련된 부장품수장부에서 6점의 환두대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분과 북분의 연속적인 축조는 선왕의 강력한 권력을 지속 승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북분 역시 남분과 마찬가지로 왕릉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¹⁹⁾

한편 남분과 북분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은 당대 신라의 사회문화상뿐만 아니라 신라와 고구려의 교류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고구려식 양식을 띤 몇몇 유물 중, 특히 주목할 것은 북분에서 출토된 금동못신이다. 금동장식신발은 삼국을 통틀어 묘주의 사회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최상류층의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부장품인데, 북분의 금동못신은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다. 이는 5세기 무렵 신라가

16) 金龍星, 2003, 「皇南大塚 南墳의 年代와 被葬者 檢討」, 『한국상고사학보』 42, 한국상고사학회, 58~59쪽.

17) 박천수, 2016, 「慶州 皇南大塚의 曆年代와 新羅 陵園의 形成 過程」, 『신라문화』 4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쪽.

18) 김성태, 2016,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앙고고연구』 20, 중앙문화재연구원, 86~91쪽.

19) 이주현, 앞의 논문, 14~27쪽.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2) 천마총

천마총은 경주시 황남동의 대릉원 고분군에 있다. 대릉원은 23기의 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천마총은 내부를 공개 전시하고 있는 유일한 무덤이다. 천마총의 발굴 작업은 1973년 시작되었으며, 발굴 결과 11,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중에는 국보 제188호로 지정된 4산형입식금관, 국보 제189호인 금제관모 등과 함께 천마도장니가 포함되어 있다.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은 다른 금관들과 달리 출(出)자형 가지 장식이 4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관의 두께 또한 두터운 것이 특징이다. 천마도장니는 155호 고분이 천마총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 계기이며, 그 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신라의 회화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크다.

천마총에서는 다량의 유물이 무덤 곳곳에서 출토되었다. 분구 내부와 목곽부 상부에서는 여러 철기와 토기가 묻혀있었다. 전체적으로 붉게 옷칠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곽부에서는 목관 주변부 및 내부 그리고 부장품 수장궤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 목관 주변부에서는 금제관모와 여러 장신구들이, 목관 내부에서는 4산형입식금관(四山形立飾金冠)과 더불어 봉황두식금동제대도(鳳凰頭飾金銅製大刀), 금제과대(金製鈔帶), 금제팔찌(金製釧), 은제팔찌(銀製釧), 금제가락지(金製環)가 출토되었다. 목관 내부에서는 주검이 발견되었는데, 목관의 연대 측정으로 미루어보아 피장자는 21대 소지마립간(昭知麻立干) 혹은 22대 지증왕일 것으로 추측된다.²⁰⁾ 목관의 동쪽에 놓여있었던 부장품 수장궤에서는 많은 양의 부장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흔히 천마도로 알고 있는 백화수피제천마도장니(白樺樹皮天馬圖障泥)를 비롯해서 기마인물도채화판(騎馬人物圖彩畫板), 서조도채화판(瑞鳥圖彩畫板) 등 신라의 뛰어난 회화 수준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2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169쪽.



2014년, 기존의 천마도라 명명된 백화수피제천마도장니와 쌍을 이루는 또 다른 회화 1점과 금동투조판식죽제장니(金銅透彫板飾竹製障泥) 1점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장니는 다래라고도 불리며 말이 걸거나 달릴 때 튼는 흙을 막기 위한 마구이다. 안장에 매달아 말의 양쪽 배에 늘어뜨리기 때문에 장니는 좌우 양 면을 가진다. 기존의 천마도는 양면이 위아래로 겹쳐 부장되었던 백화수피제장니의 아랫면으로, 2014년에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공개된 장니는 윗면에 해당한다. 금동투조판식죽제장니 한 점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여러 무늬로 투조된 10매의 금동판으로 장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백화수피제천마도장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안장과 장니의 연결부인 띠고리의 존재도 확인되었다.²¹⁾

백화수피제천마도장니는 자작나무 껍질을 두 겹으로 겹쳐 만든 것으로, 자작나무 껍질의 방수기능은 장니 그 자체의 기능에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천마도가 오랜 기간 보존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백화수피제천마도장니의 천마도는 앞서 본 금동투조판식죽제장니와 달리 금동판을 통한 투조가 아니라 나무껍질 위에 직접 그려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천마도의 구성은 검은 바탕과 가장자리의 적색과 흰색의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 즉 덩굴 식물을 장식 무늬로 그려 넣었으며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흰 천마가 그려져 있다. 그림에 사용된 안료는 모두 인공 안료로 밝혀졌으나, 방수 기능이 뛰어난 자작나무껍질 위에 어떤 방식으로 채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기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²³⁾

천마도 중심부의 천마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었다. 2009년 천마도의 적외선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림의 천마가 기린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몸의 곳곳에 그려진 반

21) 국립경주박물관, 2014, 『천마문 말다래 공개 보도자료』, 국립경주박물관, 1~2쪽.

22) 安秉燦, 2014, 「천마총 출토 천마도 장니(天馬圖障泥)에 관한 일고찰- 제작방법 및 천마의 보법(步法)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4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34쪽.

23) 위의 논문, 43~46쪽.

점과 하얀색으로 칠해진 짧고 뚱뚱한 뿔이 기린의 특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사료에 서술되는 기린의 특징이 점차 모호해졌기 때문에 천마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기린과 말이 혼합된 기린마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천마총이 축조된 시기는 신라가 점차 힘을 키워 고구려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할 무렵이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천마도의 천마는 중국의 북위나 고구려와의 교류의 영향을 받은 기린마로 봐야한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신라 건국 신화에 백마가 등장한다는 점과 천마총의 적석목곽묘 양식이 신라의 자생적인 양식인 것을 고려하면,²⁵⁾ 신라의 자생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천마총과 천마도의 모든 특징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전내물왕릉

전내물왕릉(30호분)은 신라 제17대 내물왕(356~402)의 능으로 추정되는 고분이다. 봉분의 높이가 5.9m, 봉분의 지름이 21.5m로 주변의 적석목곽분인 황남동 고분군 및 교동 고분군에 비해 크기가 작은 원형봉토분이다. 30호분이 내물왕릉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三國遺事』 왕력편에 “占星臺(점성대=침성대)의 서남쪽에 내물왕릉이 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분이 내물왕릉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괴석이 아닌 할석으로 호석을 축조한 뒤 받침석을 기댄 30호분의 축조방식은 무열왕릉이 조영되는 7세기 후반에서야 확인되므로 고고학적 편년 상에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삼국유사 왕력편의 기록에 대한 신빙성 문제와 왕릉이라고 보기에는 봉분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는 30호분을 내물왕 대의 왕릉이 아니라 7세기 후반의 왕족 또는 귀족의 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²⁶⁾

30호분이 내물왕릉이 아니라는 가정에 따라, 내물왕릉을 119호분 혹은 황남대총 남분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119호분을 내물왕릉으로 추정하는 견해는 『삼국유사』 왕력편의 기록을 신빙성 있는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침성대 서남쪽에 해당하는 교동 및 황남동 일원에서 왕릉으로 추정할 수 있는 5개의 고분 중 (28호, 29호, 30호(현재의 전내물왕릉), 118호, 119호분) 축조 방식이 적석목곽분이며 황남대총과 비슷한 거대한 규모의 왕릉으로 적합한 고분은 119호이므로, 119호분을 내물왕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동68번지고분의 축조방식과 유물의 편년이 5세기인 것을 근거로 황남동 119호분을 내물왕

24) 金善淑, 2012, 「경주 황남동 제155호분 출토 障泥에 그려진 소위 ‘天馬’에 대한 再考」, 『한국고대사탐구』 1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15쪽.

25) 김두철, 앞의 논문, 79~82쪽.

26) 이근직, 앞의 책을 주로 참고함.

릉으로 보기도 하는데, 119호분을 중심으로 5세기 신라의 능원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⁷⁾

한편, 황남대총 남분을 내물왕릉으로 추정하는 견해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사실로 보지 않고 고고학적 유물의 편년에 근거한 주장으로, 황남대총의 남분을 내물왕으로, 북분을 내물왕비인 보반부인의 능으로 추정한다.

4. 쪽샘지구

경주 쪽샘지구는 경주시 황남동, 황오동, 인왕동 일대의 중앙부에 위치한 대규모 고분 밀집지역이다. 4~6세기 신라귀족들의 집단 묘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범위가 황남리고분군의 일부와 황오리고분군, 인왕리고분군을 포함한다. 처음에는 각 고분군이 사적으로 등록되었으나, 인접해 있는 노동리, 노서리고분군과 함께 ‘경주 대릉원 일원’이라는 이름 아래 2011년 사적 제512호로 재지정되었다. 쪽샘지구는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있는 대릉원과 연결되어있고 신라 궁성인 월성과 인접하고 있어 신라 왕경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며 대릉원을 제외한 유적의 총면적은 384,000m²에 이른다.

‘쪽샘지구’라는 명칭은 이곳에 있는 샘 이름에서 유래하였는데, 샘의 물이 매우 맑아 하늘빛이 그대로 비춰져 쪽빛을 띤다 하여 ‘쪽샘’이라고 불렀다는 설과²⁸⁾, 사람들이 쪽박으로 샘물을 떠 마셨다하여 ‘쪽샘’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²⁹⁾

쪽샘지구의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유적의 훼손이 이루어졌다. 이에 경주시는 2000년부터 쪽샘지구의 토지 및 가옥을 매입하여 철거를 진행하였고, 2006년에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쪽샘지구에 고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쪽샘지구 발굴조사 작업을 시작하였다.³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도로 2007년 3월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2025년까지 발굴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기준으로 A지구에서 G지구까지 7개 구역의 분포조사와 표본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³¹⁾

2009년 3월 C지구 10호 고분에서 신라시대 갑옷이 발굴되었다. C10호 고분은 이혈주

27) 박천수, 앞의 논문, 14쪽

2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경주 쪽샘유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쪽.

2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Ⅳ』,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31쪽.

30) 이주현, 2013, 「고도경주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고문화』 8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69쪽.

3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앞의 논문, 32쪽.

부곽식 목곽묘(異穴主副槨式 木槨墓)로 하나의 봉분 속에 2개의 덧널이 있는 구조이다. 주곽의 내부 바닥에 마갑(馬甲, 말의 갑옷)이 깔려있는데, 하판을 대신하는 용도로 깔아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갑의 몸통부분 위에는 피장자로 추정되는 장수의 찰갑(札甲, 비늘갑옷)으로 된 갑옷류가 출토되었다. 주곽에는 갑옷류 외에도 토기류와 철제 무기들이 함께 매납되어 있었다. 부곽에는 마주(馬冑, 말의 투구)와 마구 부속품들, 그리고 호류(壺類)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연대는 함께 발굴된 토기의 형식을 토대로 4~5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마갑이나 갑옷 관련 부속구들이 부분적으로 소량씩만 출토되었다. 그러나 C10호 고분에서만 마구류와 갑옷류 일체가 함께 출토되었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다.³²⁾



C10호에서 발굴된 찰갑

2013년 4월에 발굴된 유물들을 바탕으로 찰갑과 투구를 복원한 모습을 공개하였다. 복원품을 통하여 C10호에서 출토된 찰갑의 특징을 살펴보면, 몸통가리개에서는 요찰(腰札, 허리부위비늘)의 단면형태가 ㄷ자형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물론 일본, 중국에서도 출토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이다. 요찰이 1단이 아닌 2단으로 제작된 것도 기존의 출토품과는 다른 특징이다. 또한 목가리개의 형태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나팔모양과는 달리 철판의 휘어진 방향이 정반대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형태이다.³³⁾

2012년 5월에는 금동장식이 부착되고 새날개모양의 관식, 정수리 부분의 입식, 뒤꽂이

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베일 속의 신라 중장기병(重裝騎兵), 1600년만에 그 완전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다!”, 2009년 6월 2일.

33) 김보상, 2014,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의 새로운 사실」, 『한국의 고고학』 26, 주류성출판사, 54쪽.

와 같은 후입식이 모두 갖추어진 관모가 41호 분에서 발굴되었다. 이 관모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어 지배 계층의 위계를 상징하는 관모인 백화수피제관모(白樺樹皮製冠帽)로 그동안 이러한 관모가 출토된 적은 있지만 완전한 형태의 관모는 쪽샘지구에서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같은 분묘의 부곽에서 농기구로 추정되는 대형 철제품을 발굴하였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삼국시대 철기 농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몸체와 날이 분리되어 있는 탈부착식 구조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최초로 발견되었다.³⁴⁾



41호분에서 발굴된 은제관식

2012년 10월 기준으로 28,000m²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신라고분 150여 기의 분포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 중 41기에 대하여 내부 정밀조사가 이루어졌고 적석목곽분, 목곽묘 등 분묘들을 비롯하여 금제이식, 금동제안고 등 3,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³⁵⁾ 아직 발굴이 되지 않은 구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의 고분 참고문헌]

개관

이청규, 2000, 「경주 고분으로 본 신라 1000년」, 『역사비평』 52, 역사비평사

김두철, 2009, 「積石木槨墓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문화』, 7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김용성, 2009,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신라고분에서 금동관식(金銅冠飾) 등 유물 다량 출토”, 2012.05.21.

35) 이주현, 앞의 논문, 70쪽.

노서동·노동동 고분군

- 조유전, 1996, 『발굴 이야기-왕의 무덤에서 쓰레기장까지, 한국 고고학 발굴의 여정』, 대원사
- 김재홍, 2014, 「金冠塚 출토 "兪斯智王"銘大刀와 피장자」, 『한국상고사학보』 86, 한국상고사학회
-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15, 「금관총에서 또 다시 ‘兪斯智王刀(이사지왕도)’ 명문 출토」
-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2013, 「신라 금관총 출토大刀에서 ‘兪斯智王’ 명문 확인」
- 신정훈, 2014, 「신라 서봉총의 은합 연대와 그 축조시기에 대한 신검토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국학연구론총』 13, 태민국학연구원

대릉원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박장식, 정영동, 2004, 「황남대총 남분 출토 칼과 창 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한 신라의 철기제작 기술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금속재료학회지』 42, 대한금속재료학회
- 金龍星, 2003, 「皇南大塚 南墳의 年代와 被葬者 檢討」, 『한국상고사학보』 42, 한국상고사학회
- 金善淑, 2012, 「경주 황남동 제155호분 출토 障泥에 그려진 소위 ‘天馬’에 대한 再考」, 『한국고대사탐구』 1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신정훈, 2014, 「신라 서봉총의 은합 연대와 그 축조시기에 대한 신검토 -역사적 맥락과 관련하여-」, 『국학연구론총』 13, 태민국학연구원
- 국립경주박물관, 2014, 『천마문 말다래 공개 보도자료』. 국립경주박물관
- 安秉燦, 2014, 「천마총 출토 천마도 장니(天馬圖障泥)에 관한 일고찰- 제작방법 및 천마의 보법(步法)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이주현, 2015, 「경주 황남대총 북분 주인공 성격 재고」, 『신라문화』 4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박천수, 2016, 「慶州 皇南大塚의 曆年代와 新羅 陵園의 形成 過程」, 『신라문화』 4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김성태, 2016,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앙고고연구』 20, 중앙문화재연구원

쪽샘지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경주 쪽샘유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이주현, 2013, 「고도경주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고문화』 8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김보상, 2014,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의 새로운 사실」, 『한국의 고고학』 26, 주류성출판사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경주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Ⅳ』,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남산

- | | |
|--------------|--------------------------|
| 1. 서출지 / 50 | 2. 남리사지, 남산동 동서3층석탑 / 51 |
| 3. 칠불암 / 52 | 4. 신선암 마애보살바가상 / 55 |
| 5. 용장사지 / 56 | 6. 상사암 / 59 |
| 7. 삼릉굴 / 59 | |

1. 서출지

서출지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1 기이편 사금갑조에 나온다. 신라 소지왕 10년(488년), 못 속에서 나온 노인이 준 편지 덕분에 왕은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옛 이름은 양피못(壤避池)이었는데 사금갑(射琴匣)의 전설이 생겨난 뒤 서출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조선 현종 5년(1664년)에 임적(任勳)이라는 사람이 못가에 건물을 짓고서 독서하고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 이 건물 추녀에는 ‘이요당(二樂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1) 경주 서출지 사금갑 전설

신라 소지왕 10년에 왕이 남산 기슭에 있던 ‘천천정’이라는 정자로 가고 있을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사람의 말로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좇아 가보라’ 하였다.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신하를 시켜 따라 가보게 하였다. 신하가 이 못에서 두 마리의 돼지가 싸우는 것에 정신이 팔려 까마귀가 간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던 중, 못 가운데서 한 노인이 나타나 봉투를 건네주었다. 신하는 왕에게 봉투를 올렸다. 그 봉투의 겉에는 “이를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적혀 있었고, 왕은 뜯어보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만 죽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관(日官)이 왕에게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 자신이다.”라고 하여, 왕은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 안에는 “궁으로 돌아가 거문고 갑을 쏘라”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고, 이에 왕은 궁으로 돌아가 자마자 화살로 거문고 갑을 쏘았다. 거문고 안에는 왕실에서 향을 올리던 중과 공주가 있었는데, 이들은 흥계를 꾸미고 있다가 화살을 맞은 것이다. 왕은 편지 덕분에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이다.

이러한 전설을 바탕으로, 이 연못에서 국가를 이롭게 하는 글이 나와 왕을 시해하려는 계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하여 이름을 서출지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매년 정월과 첫 번째 자일(子日)과 첫 번째 오일(午日)에는 일을 삼가게 됐고, 15일을 오기일(烏忌日, 까마귀 제삿날)이라 하여 약밥으로 제사 지내는 풍속이 생겨났다고 한다.

(13 김병권)

2. 남리사지(염불사지), 남산동 동서 3층석탑

1) 남리사지

남리사지는 남산의 동편의 봉구곡에 위치한 절터이다. 『삼국유사』 제5 피은편 염불사조에 따르면, 한 스님이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 염불을 외우셨으며, 법당에 앉아 나 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소리가 당시 서라벌 전역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 사람들이 그를 공경하여 염불사(念佛師)라 불렀는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의 초상을 흙으로 만들어 민장사(敏藏寺)에 모시고 그가 살던 피리사(避里寺)를 염불사(念佛寺)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이 기록에 따라 남리사지를 염불사지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남리사지는 통일신라기의 전형적인 양식인 1금당 2탑식 가람으로, 금당 앞 좌우에 동서의 쌍탑이 있고, 중문에서 강당까지 회랑이 둘러서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부터 복원공사를 통해, 불국사 지역 앞의 석탑을 해체하고 지금의 모습과 같이 동탑과 서탑을 복원했는데, 석탑의 건립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삼국유사의 기록과 각 석탑들의 양식을 통해 최소한 8세기 초에는 염불사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은 남산동의 폐사지에 건립된 쌍탑이다. 그런데 동·서탑은 묶여서 쌍탑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식과 규모가 상이하다. 두 탑은 형태, 규모, 축선의 위치, 건설된 지반의 높이, 석질 등의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두 탑은 건립된 시기도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탑은 8세기 전반 이전에, 서탑은 9세기 전반에 건립됐을 것이라 한다.³⁶⁾

36) 박홍국, 2010, 「경주 남산리 3층석탑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36

동탑과 서탑의 양식은 상이하다.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석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서탑은 전형적인 3층석탑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동탑은 탑의 토대가 되는 지대석(地臺石, 바닥돌)이 넓게 2중으로 깔려있고, 그 위에 잘 다듬은 돌 여덟개를 한 단처럼 짜 맞추어 기단부(基壇部)를 형성하고 있다. 탑신부(塔身部)의 탑신석(塔身石, 몸돌)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돌로 구성되었다. 옥개석의 경우 옥개받침과 낙수면 위의 탑신받침부에 각각 층단형의 받침을 만들어서 전탑의 받침과 같은 양식을 보인다.³⁷⁾

서탑은 2층 기단을 갖춘 평면 정사각형의 일반형 석탑이다. 기단부의 지대석과 면석은 한 돌로 만들어져있으며, 각 면은 탕주(撐柱)³⁸⁾ 1주와 우주(隅柱)³⁹⁾가 모각되어 있다. 탕주로 분할된 8면에는 팔부신중(八部神衆)⁴⁰⁾이 1구씩 조각되어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구성되었다. 옥개석의 밑에는 5단의 옥개받침과 낙수홈이 있고, 위에는 2단의 탑신받침부가 설치되어있다. 서탑은 신라 석탑 중에서 팔부신중이 가장 먼저 채용된 석탑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⁴¹⁾ (13 김병권)

3. 칠불암(七佛庵)

경주 남산의 봉화골에는 7기의 신라시대 불상과 그 옆에 세워진 칠불암(七佛庵)이 있다. 칠불암이라 불리는 작은 암자가 있고, 마애삼존불상(磨崖三尊佛像)과 사방불상(四方佛像)을 있다. 이 둘을 합쳐 ‘칠불상’이라고 부른다.⁴²⁾

마애삼존불상

삼존불이란 본존불과 좌우 협시보살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석가모니를 본존불로 모실 때는 일반적으로 문수·보현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신다.⁴³⁾

삼존불 본존불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앉아 있는 자세로 보았을 때 석가모니를 나타낸 것 같지만, 8세기 초의 아미타불상이나 비로자나불상 등

37) 박경식, 1999, 『우리나라의 석탑』, 역민사, 230쪽.

38) 상하층 기단의 면석(面石)과 탑신석(塔身石)에서 우주(隅柱)의 안쪽에 조식(彫飾)되는 기둥.

39) 상하층 기단의 면석과 탑신석의 양쪽 가장자리에 조식되는 기둥.

40) 인도의 고대신화에 나오는 신을 불교에서 흡수한 여덟 신.

41) 박경식, 앞의 책, 178쪽.

42) 양근석, 1997, 「신라(新羅) 사방불상(四方佛像) 연구(2) - 경주(慶州) 남산(南山) 봉화골(烽火谷) 칠불암(七佛庵) 칠불상(七佛像)」, 『한국시민윤리학회보』 9, 한국시민윤리학회, 145쪽.

43) 김영록, 2015, 『경주 걷기여행 : 살아 있는 역사 박물관』, 터치아트, 85쪽.

은 석가불상과 좌선자세가 비슷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체를 단정하기가 어렵다.⁴⁴⁾

본존불은 결가부좌 자세로 연꽃 위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멀리 내다보고 있다. 코는 이전에 조금 파손된 것을 시멘트로 수리해 놓았다.⁴⁵⁾ 가장 큰 특징은 머리 위에 쓰고 있는 육계(肉髻, 부처님의 정수리가 솟아올라 상투 모양을 이룬 것)와 눈시울이다.⁴⁶⁾ 육계는 끈으로 동여맨 듯하며, 눈시울은 깊게 선이 그어져 표현됐다. 이러한 점들은 본존불의 얼굴에 양감을 더하여 자비로운 모습을 부각시킨다.

본존불 몸체의 경우, 큰 귀가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고, 평평한 가슴과 불상 전체의 장대함이 입체감을 준다. 본존불이 입고 있는 옷은 몸에 밀착되어 불상의 굴곡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수인의 경우, 오른손을 무릎에 두고 손가락이 땅을 향하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다. 본존불 대좌(臺座)의 경우, 일반적인 신라시대 불상과는 다른 점이 있다. 신라시대 불상들을 살펴보면 복련대좌(覆蓮臺座, 연꽃잎이 아래로 늘어진 모양으로 장식된 대좌)와 앙련대좌(仰蓮臺座, 연꽃잎이 위로 향하는 모양으로 장식된 대좌) 사이에 팔각중대석(八角中臺石)이 존재한다. 그런데 칠불암의 본존불상에는 팔각중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존불의 오른쪽 우협시보살상은 연화대좌 위에 선 채로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협시보살의 정병은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왼쪽 좌협시보살상은 머리에는 삼면두식(머리띠의 앞과 양 옆 장식을 붙인 보살들이 쓰는 관)을 썼으며 두 어깨는 보발로 덮여 있고 가슴에 승기지(僧祇支, 옛날 중생들이나 천인이 가슴을 가리기 위해 썼던 옷)가 걸려 있다.

두 보살상에는 공통적으로 팔목에는 팔찌를 차고 머리 뒤에 커다란 보주형 두광(寶珠形 頭光)이 있다.⁴⁷⁾ 본존불 쪽을 바라보고 있는 두 보살상은 다리 길이에 비해 가슴이 넓고 길다. 이를 통해 삼존불의 제작 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다. 8세기 중엽 신라의 불상은 그 전시기의 불상에 비해 가슴이 짧아지고 다리가 길어지는데, 칠불암의 삼존불상은 이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진다. 이를 통해 삼존불의 제작 연대는 8세기 초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두 협시보살상은 각각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본존불을 강조하고 있다. 보살상이 두른 승기지와 주름치마는 불상의 몸에 감겨있다는 느낌을 주고, 이로 인해 양감이 극대화된다. 더불어 두 보살상은 본존불을 향해 정면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미묘하게 몸을 비틀고 있다. 그리고 한 쪽 팔을 들어 본존불을 향하고 있으며 두 발을 벌려 측면에서 서

44) 배재호,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 『문화유산채널』 2012. 2. 2

45) 양근석, 앞의 논문, 147쪽.

46) 홍법원편집부(편), 『불교학대사전』, (서울 홍법원, 1996), 1193, 147쪽.

47) 양근석, 앞의 논문, 148쪽.

있다. 이러한 점들이 중앙의 본존불을 부각시킨다.⁴⁸⁾

칠불암 사방불상

사방불상은 불교의 4개 정토, 동방·서방·남방·북방정토를 지키는 부처들을 조각한 불상이다. 칠불암의 사방불상은 마애삼존불상의 옆의 네모난 바위 위에 새겨져있다. 석가모니의 열반 이후 제자들은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이 다른 세계들에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되어 사방에는 정토가 존재하며 각각의 정토를 지키는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에서 사방불이 유래했다.

동면 여래상 :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으며, 왼손은 약사발을 들어 무릎 위에 놓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집어 설법인(說法印)을 나타낸다. 얼굴은 둥글고 머리 위에는 육계가 솟아나 있다. 귀는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을 정도로 크다. 몸체에는 비스듬히 승기지를 걸치고 있으며 매듭이 부챗살 모양으로 드러나 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약사발을 통해 이 부처가 중생의 질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藥師如來)임을 알 수 있다.

서면 여래상 : 몸체가 돌을새김으로, 연화대좌는 선각으로 표현됐다.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집어 올려 가슴 앞에 갖다 대고, 왼손은 검지를 펴서 설법인을 하고 있다. 눈은 자그맣고 살결은 풍부하다. 웃고름은 동면 여래상처럼 부채꼴 모양이 아니라 매듭코를 나타내고 있다. 서면 여래상은 서방정토를 담당하고 있다는 부처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를 형상화한 것이다.

남면 여래상 : 아미타여래처럼 설법인을 하고 결가부좌로 앉아 있다. 그러나 결가부좌한 발은 흘러내린 옷깃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머리 위에는 동면 여래상처럼 육계가 솟아 있고, 눈에는 두 겹으로 주름이 잡혀져 있다. 남면 여래상은 의상이 특징적이다. 다른 불상들처럼 승기지가 보이는데, 무릎을 덮은 옷자락들이 흘러내려 연화대좌를 덮고 있는 것이 여타 불상들과 다른 점이다. 이는 남북조시대 불상양식의 흔적이다.⁴⁹⁾ 동면·서면 여래상은 어떤 부처를 형상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남면 여래상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북면 여래상 : 사방불상 중에서 가장 작다. 바위의 서쪽 아랫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북면 여래상은 전체적으로 나머지 3면의 여래상과 큰 차이는 없지만, 무릎너비에 비해 키가 아주 작은 것이 특징이다. 북면 여래상 역시 남면 여래상처럼 무릎을 덮은 옷자락들이 흘러내려 연화대좌를 덮고 있다. 이 불상 역시 어떤 부처를 형상화했는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16 김영운)

48) 주수완, 2015, 「석조기법의 형성과정과 중대신라 화강암 조각의 완성」, 『선사와 고대』 44, 한국고대학회, 90쪽.

49) 양근석, 앞의 논문, 158쪽.

4.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이 불상은 흔히 신선암 마애불로 불리며, 칠불암(七佛庵) 위 남쪽 바위에 새겨져 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새겨져 있어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⁵⁰⁾ 불상의 머리에 삼면보관(三面寶冠)⁵¹⁾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얼굴은 풍만하고, 감은 두 눈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온화하고 후덕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오른손에는 꽃을 잡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까지 들어 올려서 설법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옷자락들은 대좌(臺座)⁵²⁾를 덮고 길게 늘어져 있다. 아무렇게나 자유롭고 활달하게 늘어진 것 같지만, 오른발을 늘어트린 오른쪽은 조금 짧게, 가부좌를 한 왼쪽은 길게 늘어트렸다. 이를 유희좌(遊戲坐)라 한다. 불상들 중 유희좌 단독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애상의 천의(天衣)는 아주 얇아 신체의 굴곡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돌이 아니라 실제 천을 대하는 듯 양감이 적절히 드러난다. 머리 광배와 몸광배를 모두 갖춘 광배(光背)⁵³⁾ 자체를 불상이 들어앉을 공간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보살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며, 세 겹으로 둘러친 광배는 불상에 균형과 안정감을 준다. 통일신라시대 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보인다.

이 불상은 진여(眞如)⁵⁴⁾에 이르려는 마음이 변화하여 불상이란 대상으로 현현(顯現)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남산에 있는 100여 개의 불상 가운데 가장 먼저 보름달 빛과 햇빛을 받는다.⁵⁵⁾ 보름달이 뜨면 『화엄경(華嚴經)』에서 선재동자가 만나 설법을 들었다는 수월관음(水月觀音)이 된다. 아침 햇빛이 비추면 이 부처는 서서히 돌 속에서 살아나 미소를 짓고 지곳이 경주와 속세를 바라본다. 우리는 이를 보며 관세음보살이 여래가 되기를 미루고 다시 보살의 모습을 하여 중생을 구제하러 나선 진리를 깨닫게 된다. 즉, 우리는 그 불상에서 진여를 만나게 된다.

(16 박혜민)

50) 김환대, 2009, 『한국의 불상』, 이담, 156쪽.

51) 삼면두식,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두부장식의 한 형식. 두부의 정면과 좌우측면에 꽃무늬를 나타낸 장식을 붙인 것. 중국의 복제, 북주시대의 보살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52)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대(臺).

53) 불상의 머리나 몸에 발하는 빛을 조형화한 것으로 후광(後光)이라고도 한다. 불상의 종류에 따라 두광(頭光), 신광(身光), 거신광(擧身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4) 불교에서 의미하는 중생심의 근원이 되는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

55) 이도훈, 2007, 『불교 철학으로 경주 지역 불상 읽기』, 『우리춤과 과학기술』,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21~22쪽.

5. 경주 남산 용장사지

1) 용장사지(茸長寺址) 개관

1920년 가을 이시가와 에쓰조(石川悦三)는 경주 남산 금오산 근처 오늘날의 용장사지에서 ‘용장사’라는 명문 평기와(平瓦, 오른쪽 사진⁵⁶⁾)를 발견한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당해 절터를 ‘용장사지’로 명명한다. 용장사에 관한 기록은 고려조 일연(1206~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조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이를 기본으로 한 『동경잡기(東京雜記)』에 기록되어 전해진다. 1866년 홍직필의 『매산집(梅山集)』에는 김시습(金時習, 1435-93)이 용장사에 머물며 『금오신화』를 집필했다는 내용이 있다. 기타 1933년의 김용제의 『경주읍지』에도 용장사가 소개되어 있다. 이들로 미루어보아, 용장사는 적어도 15세기 중반까지는 그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용장사 명문 평기와
(『경주남산』 특별전 도록)

유가종(瑜伽宗)의 조사(祖師) 고승 대현(大賢)은 남산 용장사에 살았다. 그 절에는 돌로 만든 미륵장육상이 있었다. 대현이 항상 이 장륙상을 돌면 장륙상도 역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 (...) 경덕왕 천보 12년 계사(天寶十二年 癸巳, 753) 여름에 가뭄이 심하니 대현을 대궐로 불러들여 『금강경(金剛經)』을 설(講)하여 단비를 빌게 하였다.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현유가, 해화엄조 발취)

한편 앞서 소개한 사료들 중 대표적으로 『삼국유사』의 기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용장사의 창건이 적어도 753년(경덕왕 12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장사가 미륵보살을 섬기는 유식학과 계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원측(圓測)-도증(道證)-대현(또는 대현)으로 이어지는 사제관계로 볼 때 용장사의 세(勢)가 매우 강하였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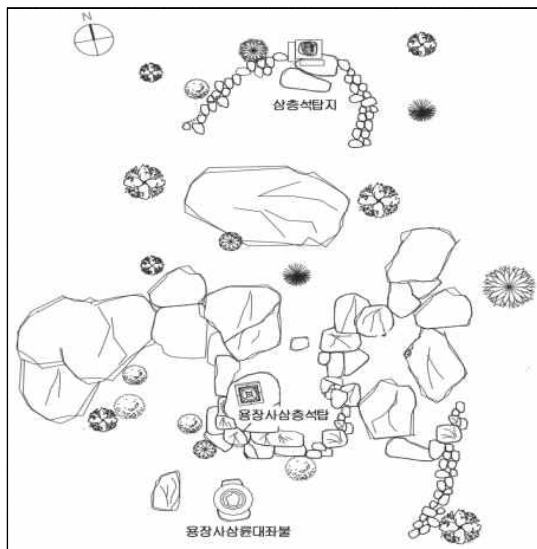
56) 『경주남산』 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박물관.

알 수 있겠다.

경주 남산의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 능선에 위치한 용장사지는 동서 약 70m, 남북 약 40m의 범위 안에 산재한 축대·초석들과 함께 3층 석탑(보물 제186호), 석조여래좌상(보물 제187호), 마애여래좌상(보물 제913호)이 있다.

2)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아래부터 ①하대석⁵⁷⁾, ②3층의 삼륜대좌(三輪臺座)⁵⁸⁾ 그리고 ③불상으로 이루어진 전체높이 4.56m(① 1.06m+② 2.091m+③ 1.41m)의 조형물이다. 본 조형물은 자연석을 가공한 하대석에 지름 1.17m의 고임을 만들고, 그 위에 둥근 몸돌과 원형판석 3층을 올렸다. 위로 올라갈수록 둥근 몸돌과 원형판석의 크기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불상은 세 겹의 양련대좌(仰蓮臺座,



용장사지 유적배치

연꽃잎이 위로 향하는 모양으로 장식된 대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자세로 앉아 있다. 어깨는 좁은 편이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며, 몸의 굴곡을 세세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균형 잡힌 신체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 좌상의 수인은 일반적인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과 달리 오른손은 위로 펴서 아랫배 앞에 올려놓고 왼손은 왼쪽 무릎에 살짝 올려놓아져있다는 점⁵⁹⁾에서 특이하다. 이를 두고 항마촉지인의 오른손과 왼손을 바꾸어 표현했다는 견해와, 상의 성격이 보살상임을 드러낸다는 견해가 있다. 『삼국유사』의 ‘미륵장육상(彌勒丈六像)’에서 언급된다는 점과, 수인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 원칙상 그 형태를 임의로 바꾸거나 혼동해서는 안

57) 지면과 맞닿아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면에 분산시키는 부재.

58) 대좌는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대(臺)로써, 석가가 성도(成道)할 때 보리수 아래에 앉았던 일에서 유래하였다. 석가가 신격화됨에 따라 불상을 제작할 때는 불신(佛身)을 반드시 대좌에 안치하게 되었다.

59) 과거세(過去世)에 세웠던 서원(誓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손 모양을 가리킨다. 불전도(佛傳圖)에 등장하는 석가의 손 모양에서 유래하였다.

되지만, 한반도의 경우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불상의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상의 이름과 양식을 분명히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좌상은 불상의 머리가 부러져 나간 모양으로 볼 때, 신체와 얼굴을 따로 제작해 조립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인 석조여래상 제작기법을 따르지 않고, 신체와 얼굴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둥근(輪) 대좌의 형태는 『삼국유사』에서 “미륵장육상이 태현의 얼굴을 따라 돌았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층으로 구성된 대좌형태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미륵이 하생하여 3회 설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석조여래좌상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불상 옷자락(승각기 매듭, 가사끈 매듭, 옷 주름 등)의 세부표현을 근거로 8세기 전반기 설, 8세기 중엽설, 9세기 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바 있다.

3)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의 동쪽 바위면(높이 약 5.5m, 폭 약 3.6m)에는 1.62m 높이의 항마촉지인의 여래좌상이 돌을새김 되어 있다. 역시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를 틀고 있으나 연화대좌가 낮고 얇게 표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음각선이 2층으로 두광(頭光)⁶⁰과 신광(身光) 각각을 표현하였다. 불상의 머리는 나발이나 육계(肉髻)⁶¹의 표시가 불분명하다. 삼도(三道)⁶², 즉 불상 목에 새겨진 세 개의 주름의 간격은 좁아서 목이 짧아 보인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다소 경직된 느낌을 주는데, 볼륨감이 없는 일정한 층단형 옷 주름의 영향이 크다.

한편,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이희진은 본 마애여래좌상의 표현양식을 다른 조형물(8세기의 보리사 석조여래좌상과 9세기의 함월산 골굴암 마애여래좌상)과 비교하여 그 제작시기를 9세기 초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2014). 반면 이보다 앞서 박홍국은 마애여래좌상 신광 옆에 새겨진 3행의 11자(지워진 글자 포함 15자)의 명문을 근거로 977년 또는 1022년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1998). 그 근거로서 명문 제1행의 첫 두자를 太平이 아닌 太平으로 보아 역대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한 연호와 맞추어볼 때 태평여국(太平與國, 976-983)과 태평(太平, 1021-1030)이 남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다만 간지(干支)가 없기 때문에 본 마애여래좌상의 제작시기를 하나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09 조성빈)

60) 광배의 일종. 각주 30번 참조.

61) 부처의 정수리에 상투처럼 우뚝 솟아오른 혹과 같은 것.

62) 삼도란 생사를 윤회(輪回)하는 인과(因果)를 나타내며, 번뇌도(煩惱道), 업도(業道), 고도(苦道)를 의미한다.

6. 상사암(慶州 南山 相思巖)

1) 상사바위

상선암(上禪庵)에서 마애석가여래 대불좌상을 거쳐서 올라가면 포석계곡에서 올라오는 산로(山路)와 만나지게 되면서 커다란 바위산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상사바위라고도 불리는 상사암(相思巖)이다. 상사바위는 높이 13m, 길이 25m 정도의 크기이며, 하나의 바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바위들로 이루어져있다.⁶³⁾

『동경잡기(東京雜記)』의 상사바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상사바위는 금오산에 있다. 그 크기가 백여 발이나 되며 그 생긴 모양은 가팔라서 오르기가 어렵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위하고 빌면 병이 낫는다. 산아당(産兒堂)은 금오산에 있는데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을 돌에 새겨 놓았다. 신라 때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빌던 곳이라 전하는데 가위와 칼자국이 남아 있다.”

2) 상사바위 뒤편 감실, 석불입상

한편, 상사바위 동쪽 방향에는 사각으로 만들어진 감실이 있다. 감실의 크기는 가로 1.44m, 높이 56cm, 깊이 30.3cm이며 아직도 이곳은 감실에서 소원을 비는 행위로 촛불에 그슬린 흔적이 있다.

상사암 감실 아래는 비스듬하게 서있는 석불입상이 있는데, 높이가 80cm, 너비가 35cm이다. 이 불상은 토속신앙과 불교의 영향을 함께 받아 만들어진 불상이다. 불상의 두 상은 없어졌고 남아있는 두 손은 가슴에 모아서 붙이고 있는 모양이다. 마멸이 심한 상태이다. (15 이다숨)

7. 삼릉골

1) 삼릉

삼릉(三陵)은 왕릉 3기가 모여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경주 배동 삼릉(慶州 拜洞 三陵)

63) 김환대, 2010, 『경주남산』, 한국학술정보, 127쪽.

이라고도 한다. 남산 서쪽 기슭에 있는 세 왕릉의 주인은 각각 신라 제8대 아달라 이사금,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으로 전해지고 있다.⁶⁴⁾ 하지만 신라 초기의 아달라 이사금과 신덕왕, 경명왕 사이의 간격이 700여 년이기 때문에 이들의 무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아달라 이사금의 재위 시기인 신라 초기에 존재한 무덤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다. 세 무덤은 모두 원형으로 흙을 쌓아올린 형태를 하고 있으며, 가운데에 있는 신덕왕릉의 경우 도굴당한 이후 내부를 조사한 결과 굴식 돌방무덤임이 확인되었다.

아달라 이사금(재위 154~184, 박아달라)은 당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통로를 만들었고, 이 때문에 백제와의 전투가 잦은 상황이었다. 아달라왕은 직접 참전하여 많은 포로를 데려왔고, 이에 백제는 화친을 요청하였다. 한편 왜(倭)와는 사신을 통해 교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덕왕(재위 912~917, 박경휘)은 아달라왕의 후손으로, 효공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왕으로 추대됐고, 오래도록 유지돼오던 김씨의 왕위 세습이 끊기고 박씨가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 때 신라는 견훤과 궁예의 세력에 밀려 영토가 크게 축소되었고,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뒤를 이은 신덕왕의 아들 경명왕(재위 917~924, 박승영)은 당시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과 손을 잡고 견훤의 백제군과 맞서 싸웠다. 하지만 이어지는 백제군과의 전투로 신라는 국력이 점점 쇠퇴해 갔으며 결국 제55대 경애왕을 거쳐 제56대 경순왕 9년에 고려에 항복하여 천 년 왕조를 마치게 된다.

① 삼릉계곡 불상의 가치

527년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이래, 많은 사찰, 탑들이 세워지고, 불상들이 만들어졌다. 신라 남산에는 수많은 석불상들이 있고, 이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마애불(磨崖佛)⁶⁵⁾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에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지역의 사회사, 예술사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② 냉곡 석조여래좌상

일반적으로 목 없는 석불좌상이라고 불리며, 삼릉골을 따라 300m쯤 올라간 곳에 있다. 1964년 7월 인근 계곡에 파묻혀 있던 것이 발견되어 이곳에 옮겨졌다고 한다. 머리와 두

64) 김환대, 앞의 책, 110쪽.

65) 암벽에 새긴 불상.

손이 없는 채로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자세를 하고 있으며 법의(法衣)의 주름이나 가사(袈裟)자락의 매듭 등이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조각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9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⁶⁶⁾

③ 삼릉골 마애관음보살입상

냉곡 석조여래좌상의 왼쪽 옆으로 난 길로 50m 정도 오르면 관음보살입상이 새겨진 바위를 볼 수 있다.⁶⁷⁾ 머리에 쓴 보관에는 관세음보살상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 위쪽으로 들고 왼손은 아래를 향한 채로 정병(淨瓶)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힘이 깃든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 짙룩한 허리와 두 다리, 미소 띤 표정 등의 섬세한 조각은 이상적 사실주의 양식이 반영된 8세기 후반기에서 9세기 초의 작품으로 볼 수 있고,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19호로 지정되어 있다.

④ 삼릉골 선각육존불

냉곡 석조여래좌상에서 100m쯤 오르면 선각 육존불이 있다. 2쌍의 삼존불을 동·서 바위면에 새긴 육존불이며, 둘 다 가운데의 본존(本尊)을 중심으로 양 옆에 협시보살상이 자리잡고 있다. 동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를 새긴 석가여래 삼존상이고 서쪽은 서방정토(西方淨土)를 주재하며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푼다는 아미타여래 삼존상이다. 두 장면으로 나누어진 두 불상과 두 협시보살상, 두 공양보살상의 손 모양이나 자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로 연관되는 불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 현세불과 내세불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바위 위에는 빗물을 돌리는 홈이 패여 있었기 때문에 보호 전각 시설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⁶⁸⁾ 조각 수법이 정교하고 우수하여 우리나라 선각마애불 중에서는 으뜸가는 작품으로 꼽히며, 조각자나 만들어진 시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삼릉골 선각여래좌상

선각마애육존불에서 위쪽으로 500m쯤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이다.⁶⁹⁾ 가운데의 홈을 기점으로 위쪽에 불상이 있고, 아랫단은 연화대좌가 새겨져있다. 얼굴만 도드라

66) 김환대, 앞의 책, 113쪽.

67) 김환대, 위의 책, 114쪽.

68) 김환대, 앞의 책, 116쪽.

69) 김환대, 위의 책, 117쪽.

지게 표현한 돌을새김이며, 나머지 부분은 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독특한 조각이다.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된다.

⑥ 삼릉골 석조여래좌상

화강암을 조각하여 만들었으며, 머리 부근에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다. 안정감 있는 자세를 하고 앉아있다. 앉아 있는 대좌(臺座)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는데, 상대에는 연꽃무늬 조각, 중대·하대는 8각 대석으로 되어 있다. 8각의 연화대좌에 새겨진 연꽃무늬와 눈 모양의 안상(眼象)을 비롯하여 당당하고 안정된 자세 등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8~9세기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며 보물 제666호이다. 2008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하였다.⁷⁰⁾

⑦ 삼릉골 마애석가여래좌상

상선암 마애대불이라고도 불리는 이 불상은 높이 7m로 삼릉계곡에서는 가장 큰 불상이다. 자연 암반을 파내어 광배(光背)⁷¹⁾로 삼았는데 깎아내다가 만 것처럼 거친 표면을 볼 수 있고, 풍만한 얼굴에 둥근 눈썹이 인상적이다. 결가부좌한 양다리의 발 표현과 연화대좌가 특이하게 조각되어있다. 머리 바위 면에서 떨어질 듯 따로 조각하고 몸은 바위 면에 붙여서 자연석 그대로 선으로 조각한 것이 통일신라 말 9세기 이후의 조각으로 추정되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8호로 지정되어 있다.⁷²⁾

⑧ 선각마애불

높은 벼랑 위에 솟은 바위 면에 얇게 선각되어 있어 아침이나 석양 무렵이 아니면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간결한 선으로 표현했으며 아랫부분이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완성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고려시대 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⁷³⁾ (화학 13 김소윤)

70) 김환대, 앞의 책, 120쪽.

71) 불상의 뒤 쪽에 있는 원형이나 배 모양의 장식물인데,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한다.

72) 김환대, 앞의 책, 124쪽.

73) 김환대, 위의 책, 118쪽.

[남산 참고문헌]

서출지(書出池)

박경식, 1999, 『우리나라의 석탑』, 역민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 『경주남산 남리사지 동서삼층석탑 발굴조사 보고서』

박홍국, 2010, 「경주 남산리 3층석탑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慶州 南里寺址(傳 念佛寺址) -指導委員會議 資料-』

남리사지(염불사지), 남산동 동서 3층석탑

박경식, 1999, 『우리나라의 석탑』, 역민사

朴洪國, 2010, 「경주 남산리 3층석탑의 특이점에 대한 고찰」, 『新羅文化』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소재구, 2010, 『(慶州南山 南里寺址) 東 西三層石塔 : 發掘調査 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칠불암

양근석, 1997, 「신라(新羅) 사방불상(四方佛像) 연구(2) - 경주(慶州) 남산(南山) 봉화골(烽火谷) 칠불암(七佛庵) 칠불상(七佛像)」, 『한국시민윤리학회보』 9, 한국시민윤리학회

주수완, 2015, 「석조기법의 형성과정과 중대신라 화강암 조각의 완성」, 『선사와 고대』 44, 한국고대학회

김영록, 2015, 『경주 걷기여행 : 살아 있는 역사 박물관』, 터치아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이도흠, 2007, 「불교 철학으로 경주 지역 불상 읽기」, 『우리춤과 과학기술』,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김환대, 2009, 「한국의 불상」, 이담

김환대, 2010, 「경주 남산」, 한국학술정보

경주 남산 용장사지

朴洪國, 1998, 「慶州 南山 苐長寺址 磨崖如來坐像의 銘文과 造成年代」, 『경주사학』 17, 경주사학회

이희진, 2014, 「경주 남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연구」, 『정신문화연구』 3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유산답사사회 엮음, 2012 개정판, 『답사여행의 길잡이 2 - 경주』, 돌베개

경주 남산 상사암

강재철, 1997, 「慶州 南山의 「産神堂」 銘文 및 「産兒堂 記事」와 祈子習俗考」, 『비교민속학』 14, 비교민속학회

삼릉골

김환대, 2010, 『경주남산』, 한국학술정보

감포읍

- | | |
|-------------|--------------|
| 1. 대왕암 / 64 | 2. 감은사지 / 65 |
| 3. 골굴사 / 69 | 4. 기림사 / 71 |

1. 대왕암

대왕암은 경주 봉길리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면, 해안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섬이다.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한 신라 30대 왕 문무왕(626-681)이 죽은 뒤, 화장된 그의 유해가 이곳에 뿌려졌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다. 문무왕의 유해가 묻힌 해중릉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바위섬 아래 유골 장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설로, 발굴작업을 통해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다만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왕 사후 그의 유언에 따라 동해 가운데 있는 큰 바위에서 장례를 지냈고, 유골을 간직한 바위를 대왕암이라고 불렀다.

대왕암이 실제 문무왕의 해중릉임을 입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대왕암에 얹힌 이야기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왕은 살아생전에 왜병을 진압하고자 지금의 감은사를 짓고 있었는데 끝내 완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용이 되었다. 그의 아들 신문왕은 선왕을 기리는 뜻에서 감은사를 완공시켰다. 그 뒤에 신문왕은 용이 된 아버지를 영접했는데, 그 영접장소라고 전해지는 곳이 이견대이다. 그는 이견대를 아버지를 기리며 제를 올리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 이견대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다. 많은 학자는 처음 발굴된 이후 복원된 이견대의 위치가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에 반하여 실제 이견대는 조금 더 고지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견대가 문헌에서 전해지는 바와 같이 대왕암을 바라보며 문무왕을 기리는 장소였다고 한다면 저지대에 있는 현재 이견대의 위치는 합당하지 않다. 이창식에 따르면 현재 복원된 이견대는 당시에 왜군을 대항하는 군사들의 진지이거나 이 일대의 성소 유적을 관리하던 해관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

1) 이창식, 2014,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 『新羅文化』 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22쪽

여기서 성소 유적이라 하면 감은사, 이견대, 대왕암에 이르는 신성한 장소 일대를 말한다. 문무왕의 유골이 간직된 대왕암, 용이 드나들도록 한 감은사, 그리고 용이 된 문무왕을 영접한 이견대, 이 세 장소는 하나의 이야기를 간직한 ‘영역’으로서, 선왕을 기리고자 하는 신문왕의 의도에 따라 성역화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왕암에 얹힌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지는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이다. 신증원에 따르면 여기에는 사료 취급상의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왕암 이야기가 나오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리고 감은사 자체의 절 기록 등은 별개의 사서이며 내용도 서로 다른데 동일 선상에서 논의한 점이다. 둘째,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말년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면도 보이고, 내용이 조금 다른 본문과 협주를 구분하지 않았다. 셋째, 후대의 각종 자료를 가지고 선대의 자료를 해석하는 등 연구 방법상의 오류가 있다.²⁾

이러한 사료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암을 통해 신문왕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문무왕이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그의 사후 신라의 상대는 왜구였다. 문무왕이 왜구를 막기 위해 감은사를 짓고 있었다는 기록에 비춰 알 수 있듯이 당시 신라에 있어 왜구는 큰 골칫거리였다. 그 절을 다 짓지 못하고 죽어서 동해에 묻히고자 했던 왕이 용이 되었으니, 그는 죽어서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용’이 된 것이다. 여기서 위정자인 신문왕의 정치적 목적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신문왕은 호국 사상을 용신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결합하여 이를 지리적 공간에 투영시켰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을 효과적으로 선전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통일이라는 치적은 문무왕 사후에도 후대에 지속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생활디자인 13 최수지)

2. 감은사지(感恩寺址)

1) 연혁과 가람배치

감은사는 신라 문무왕 때 건설되기 시작해 682년(신문왕 2)에 완성된 통일신라 때의 사찰로, 호국사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감은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萬波息笛)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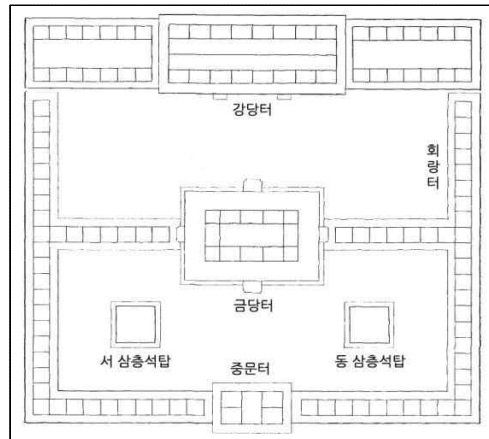
을 참고함.

2) 신증원, 2012, 「울산 대왕암의 명칭과 유래」, 『지명학』 18-12, 한국지명학회, 217쪽을 참고함.

제31대 신문대왕(神文大王)의 이름은 정명(政明)이며, 성은 김씨다. …(중략)… 부왕인 문무대왕(文武大王)을 위해 동해 가에 감은사를 세웠다. 절에 있는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으로 짓다가 다 끝나치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요 2년(682)에 끝마쳤다. 금당 섬돌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 두었는데, 이는 용이 들어와서 서리고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개 유언으로 유골을 간직한 곳을 대왕암(大王岩)이라고 하고, 절을 감은사라고 이름 했으며,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이견대(利見臺)라고 하였다.³⁾

이처럼 감은사는 문무왕 치세 당시 왜구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을 시작한 후 문무왕의 승하 이후 신문왕이 이를 계승, 절을 완성하여 부왕의 명복을 빌기도 했던 장소이다. 감은사의 폐사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 중기 성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서도 감은사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는 감은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

감은사의 가람배치는 중문, 쌍탑, 금당, 강당 순으로 배열된 일금당이탑(一金堂二塔)의 쌍탑식으로, 통일신라 때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가람배치 방식을 취하고 있다.⁵⁾ 이는 황룡사나 분황사로 대표되는 통일신라 이전의 일탑삼금당(一塔三金堂) 배치와는 다른 모습이다. 일금당이탑 형식의 가람배치는 문무왕 치세 당시 건립되었던 망덕사와 사천왕사가 그 시초이며, 감은사의 이 형식은 이후 불국사 창건 등에 영향을 끼쳤다. 절의 금당 아래에는 사각형의 돌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만든 60cm 높이의 지하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감은사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공간을 만들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한다. 또한 금당의 양측 면에는 동, 서 회랑을 연결하는 익랑(翼廊)이 존재한다. 이는 통일신라 중기에 이르러 성행한 양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은사를



감은사지 가람배치도

3)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

4)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1997,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36쪽.

5) 유홍준, 1993,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창작과비평사, 165~166쪽.

통해 통일신라 초기에도 동일한 양식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은 가람의 전체적인 배치는 감은사가 철저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사찰임을 드러낸다.

2) 감은사지 삼층석탑

감은사지 금당 터 앞에 동서 양쪽으로 서 있는 2기의 석탑이 바로 감은사지 삼층석탑이다. 2기가 동서 양쪽으로 서 있다. 국보 112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두 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는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지만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으며 철계찰주만이 남아있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의 창건 시기에 관해서는 신라 신문왕 2년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남아있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의 특징 중 하나는 목조 건축 기법이 일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상하층 기단의 갑석 이음 위치가 모두 탕주 위에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목조 건축에서 창방과 평방의 이음을 기둥 위에 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옥개 받침 상면 끝부분을 10mm 정도 낮게 다듬어 옥개석 끝부분에 상부 하중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한 기법 역시 목조 건축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것을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에 석탑을 만들 때 목조건축기법을 여러 요소에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⁷⁾

또한,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통일 신라 석탑의 규범을 이루는 시원적인 석탑으로 볼 수 있다. 감은사지 석탑은 석탑 전체의 높이가 지대석 폭의 두 배와 일치하며, 상륜부는 석탑 전체 높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고선사지 석탑, 구황동 삼층 석탑, 경주 천군동 쌍탑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 석탑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소 변화는 겪었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하여 신라 석탑의 주류를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석탑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⁸⁾

3)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사리란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난 후 화장했을 때 나오는 유골을 뜻하며 사리를 봉안하는 데 사용한 용기를 사리장엄구라고 총칭한다.⁹⁾ 이 사리장엄구가 서 삼층석탑의 경우 1959년에, 동 삼층석탑은 1996년에 석탑 해체 보수 공사시 각각 발견되었다. 감은사지 삼

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앞의 책, 233쪽.

7) 남시진, 2008, 「감은사지 삼층석탑 구조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7-3, 한국건축역사학회, 7~16쪽.

8) 한정호, 2007, 「감은사지 삼층석탑 창건 과정과 意匠匠劃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한국미술사학회, 15~18쪽.

9) 김상태, 2007, 「감은사 사리장엄에 의한 2탑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2, 한국건축역사학회, 139~140쪽.

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크게 사리를 직접 안치한 내함인 전각형 사리기와 이를 덮고 있는 방추형 뚜껑을 가진 외함으로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함의 사리기는 전각 내에서 불상이 안치되는 불단과 유사한 기반부를 갖추고 있으며 외함은 장방형의 상자에 방추형 뚜껑이 덮인 상태이다.



감은사지 동탑 사리장엄



감은사지 서탑 사리장엄

동·서탑에서 발견된 외, 내함의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외함의 경우 주제 문양에 사천왕상을 활용했다는 것은 같으나 동탑의 경우 북방의 다

문천왕, 서탑의 경우 동방의 지국천왕이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함의 경우 동탑의 사리장엄구에는 기단부에 기단 모서리에 네 마리의 사자가 장식되어 있으며 기단 서쪽 난간 중앙에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서탑의 사리장엄구의 경우 사자가 장식되어 있지 않으며 문도 없다.

다른 차이점으로는 동탑의 내함은 사천왕상이 장식되어 있지만 서탑의 내함은 동자상, 또는 연주하는 천인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는 호국 정도 실현을 의미하는 사천왕상이 새겨진 동탑의 경우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대왕의 호국 신앙을 담았고, 주악천인과 동자상이 새겨진 서탑 내함의 경우 부처님에 대한 공양을 의미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리 외함의 뚜껑부와 사리 내함의 구조는 중국 돈황석굴 내부의 지붕형태와 거기에 그려진 그림과 매우 유사해 당시 당에서부터 사리장엄구의 형태가 유입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¹⁰⁾

(16 정현경, QRM 16 박한결)

3. 골굴사

골굴사는 선무도(禪武道)의 본부가 되는 절로, 조계종 제11교구의 본산인 불국사의 말사인 기림사와 거의 동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몇 없는 자연 석굴 사원으로 12개의 석굴로 이루어져 있다.

1864년 정시한은 자신의 저서인 『산중일기』에서 여러 채의 목조와가(木造瓦家)¹¹⁾로 지어진 전실의 석굴사원이 마치 병풍의 그림과 같다는 평을 내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15리를 가서 골굴암에 닿았다. 앞에 있는 고개에 올라가 바라다보니 석봉이 기괴하다. 괴석처럼 생긴 바위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거기에 굴이 있다. 굴 앞에는 목조 가옥을 세워놓아 처마와 창이 달려 있고, 벽에는 채색도 했다. 바위 사이에 단청이 된 전각 5, 6채가 걸려 있는 것이 바라보이는데, 마치 그림속의 광경과 같다.(후략)¹³⁾

1688년에 쓰인 이 글은 골굴사의 모습을 괴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곳에 굴이 위치

10)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0,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34쪽~97쪽, 208쪽~214쪽을 참고함.

11) 나무와 기와로 만든 집.

12) 김환대, 2010, 『경주의 불교유적』, 한국학술정보(주), 98쪽을 참고함.

13) 丁時翰, 신대현 번역 주석, 2005, 『산중일기』, 도서출판 해안, 421쪽을 참고함.

하고, 굴 앞의 목조 가옥에는 처마와 창이 달려있으며 채색된 벽이 있었다고 묘사했다. 글에 따라서 상상해본다면 골굴사의 모습은 당시의 절과는 다른 형식의 독특한 모양과 형상을 지닌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실제로 이러한 양식의 절은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 또는 인도의 절과 유사한 형태이다. 겸재 정선의 1773년 작 ‘교남 명승첩’에도 골굴사가 등장하는데, 이 또한 골굴사의 독특함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¹⁵⁾ 1740년에 만들어진 해동지도에도 골굴사가 목조와가로 표현되어있다.

골굴사는 그 외형뿐만 아니라 골굴사가 내포하는 가치 면에서도 다른 절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골굴사의 지향점은 다른 절과 마찬가지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의 수행이지만 그 수행방법이 선무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무도는 한국 전통의 승가무술인데, 이를 통해 하화중생¹⁶⁾을 실현하려는 것이 보편적인 절의 포교 방편과는 다르다.

법당굴은 굴 앞면을 벽으로 삼고 그 위에 기와를 얹어 집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과 벽이 전부 돌로 된 석굴이다. 북쪽 벽에 감실을 파고 부처를 모시고 있지만 훼손정도가 심해 표정은 알 수 없다. 법당굴 외에도 약사굴, 나한굴, 지장굴 등 여러 개의 자연석굴 법당이 있다.¹⁷⁾ 법당굴과 다른 굴들은 한사람이 겨우 들어앉을 수 있는 것부터 서너 명이 들어앉아도 넉넉한 크기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불상 역시도 동자승에서부터 노스님까지 여러 형태의 불상이 다양하게 놓여 있다.¹⁸⁾

골굴사 마애여래좌상 : 골굴암 높은 곳에 있는 자연굴을 이용하여 만든 12개의 석굴 중 가장 윗부분에 있는 것이 마애여래좌상이다. 높이 4m, 폭 2.2m 정도의 크기로 보물 제 581호로 지정돼있다. 모래 성분이 많은 화강암에 새긴 탓에 현재는 마모되어 흔적만 남아 있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비바람에 파손이 다소 심해 양어깨와 무릎 쪽의 훼손 상태가 특히 심하다. 이로 인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와 보호 작업을 통해 1988년 비를 막아주는 둥근 돛형의 유리 천장을 만들고 암면에 화학처리를 하였다.¹⁹⁾

마애여래좌상은 육계²⁰⁾가 우뚝 솟아있고 얼굴 윤곽은 뚜렷하다. 가는 눈과 작은 입, 긴 코 등 표현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체감이 뛰어난 얼굴과는 반대로 옷의 표현은 대부분 규칙적인 평행선을 이용하여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다. 암

14) 강석근, 2016, 「골굴사의 선무도 문화콘텐츠 활용 현황과 발전방안」, 『韓國思想과 文化』 84, 한국사상문화학회, 357쪽을 참고함.

15) 김환대, 앞의 책, 98쪽을 참고함.

16) 보살의 수행방법 중 하나로,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이다.

17) 김환대, 앞의 책, 98쪽을 참고함.

18) 경주시청 제공. 한국관광공사, 골굴사(경주) 항목에 실린 내용을 참고함.

19) 金禮淳, 2001, 「新羅時代 慶州地域 磨崖佛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50쪽을 참고함.

20) 상투 모양의 머리.

벽에 광배(光背)라는 연꽃무늬가 새겨진 머리 광배와 불상 둘레의 역동적인 불꽃무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평면적인 신체와 가느다랗고 평행하게 새겨진 옷 주름, 겨드랑이 사이의 U자형 옷 주름으로 보아 867년 새겨진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 광배(보물 제 955호)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²¹⁾

(16 이채린)

4. 기림사

기림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함월산 중턱에 있다. 643년(선덕여왕 12) 범마라국(梵摩羅國)의 광유대사가 기림사를 창건했다는 설화가 있다.²²⁾ 절의 연혁을 전하는 여러 자료에 따르면 기림사는 광유대사의 창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효대사가 중창하였는데 초기에 임정사(林井寺)였던 절의 이름이 이때 기림사로 바뀌었다. 이는 부처님 생존 당시 최초의 절이었던 인도의 기원정사(祇園精舍)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기림사의 경우 원효의 중창 사실을 전하는 기록들도 그 시기나 과정 등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저 중창하고 절 이름을 바꿨다고만 하고 있어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 더욱이 원효 생애에서 기림사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경북 경산이 기림사와 멀지 않은 점, 생애 많은 부분을 경주 인근에서 지냈다는 점 등 지리적 측면에서 중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이도 있다.²³⁾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효(617~686) 생존 당시 기림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682년(신문왕 2) 5월에 왕이 감은사 앞바다에 행차하여 만파식적을 얻은 후 기림사의 서쪽 계곡에 들러 점심을 들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다.²⁴⁾ 기림사가 적어도 682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한편 신라 시기 창건된 기림사는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사상 면에서 변천을 보였다. 고려 시대에는 당시 대선사(大禪師)라는 선종의 최고 승직에 올랐던 각유(覺猷)가 주석하면서 선종 중심 사찰이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호국 사상과 정토 신앙이 주를 이루었다.

21) 한국 문화재청, 문화재 소개,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항목을 참고함.

22) 강석근, 이창식, 2013, 「경주 기림사(祇林寺)의 오종수(五種水)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역사문화학회, 66쪽.

23) 韓相吉, 1998, 「祇林寺의 歷史와 思想」, 『佛敎美術』 15, 동국대학교 박물관, 12~13쪽.

24) 감은사는 문무왕이 불력으로 왜구 물리치고자 발원한 사찰로 아들 신문왕 때 완성되었다.

25) 韓相吉, 앞의 논문, 15쪽.

기림사 내 현존하는 전각과 불상, 불화 등의 유물들 대부분은 조선 시대에 조성된 것들이기도 하다.²⁶⁾ 1862년 화재 발생으로 113칸이 소실되는 비극도 있었지만 1899~1900년에 대대적인 중수를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대가람을 갖춰 전국 31본산의 하나로 지정되었다.²⁷⁾

1) 진남루(鎭南樓)

기림사가 호국사찰임을 잘 보여주는 진남루는 대적광전 정면에 있다. 명칭은 누각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반적인 건물의 형태이다. 남쪽을 진압한다는 뜻의 ‘진남’에는 일본을 누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임진왜란 당시 기림사는 경주 지역 승병과 의병의 중심 활동지였다. 1591년(선조 24)에는 기림사승 인성(印性)이 군량미 680량을 이안국(李安國)에게 지원하였고, 이듬해 전쟁이 발발하자 279명의 승병을 이끌고 의병으로 결기하였다. 1594년(선조 27) 11월에는 의병장 이눌이 군사를 이끌고 기림사에 주둔하면서 왜군과 맞섰다.²⁸⁾

이 건물은 경주부 관아에서 보관해오던 『영부안선생』이나 『호장안』 등의 중요한 문헌들을 안전하게 보존해온 곳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당시 경주호장 최락이 관아의 각종 서류를 이곳으로 옮겼는데, 기림사가 워낙 깊은 산중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긴 건물로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정면이 긴 목조건물이지만 목구조의 취약성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 것이 독특하다. 성보박물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림사에 내려오는 갖가지 유물들을 보관하는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었다.²⁹⁾

2) 삼층석탑

응진전 앞에 있다. 약 3m 높이로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얹은 전형적 양식의 소규모 석탑으로 사찰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안산암으로 만든 탑으로 기단은 2중으로 되어 있다. 2중 기단 중 아래의 기단은 낮으며, 한 면에 3개씩의 기둥 모양이 새겨져 있다. 위의 기단은 높은 편으로 역시 각 면에 3개씩의 기둥이 새겨져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래의 위치에 놓여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랜 세월을 견뎌오면서도 상륜부의 노반(露盤, 머리장식받침)과 복발(覆鉢, 얹은 그릇모양의 장식), 양화(仰花, 활짝 핀 연꽃모양의 장식)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탑으로 현재 경

26) 韓相吉, 위의 논문, 17쪽.

27) 우리사찰답사회, 2005, 『(경상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 불국사·기림사·골굴사』, 문예마당사찰기행, 119쪽.

28) 韓相吉, 앞의 논문, 18쪽.

29) 우리사찰답사회, 앞의 책, 140쪽.

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다.³⁰⁾

기림사는 다수의 문화재뿐 아니라 오종수(五種水)와 우담바라가 핀다는 전설로도 유명하다. 오종수는 ‘오색화(五色花)’와 더불어 기림사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상징물이다. 오종수란 장군수와 오락수 등 다섯 가지 약수를 말하는데, 각각의 약수에는 영험함이 서려있다고 전해진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약수는 두 개뿐이며, 옛 효험이 아직도 발휘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우담바라는 천 년에 한 번 핀다는 불화(佛花)이다. 주 영역인 대적광전 앞마당에 핀다고 알려져 내려온다.³¹⁾ (13 안수경)

[감포읍 참고문헌]

대왕암

신종원, 2012, 「울산 대왕암의 명칭과 유래」, 『지명학』 18-12, 한국지명학회

이창식, 2014,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 『新羅文化』 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감은사지

유홍준, 1993,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창작과비평사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1997,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0,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상태, 2007, 「감은사 사리장엄에 의한 2탑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2, 한국건축역사학회

한정호, 2007, 「감은사지 삼층석탑 창건 과정과 意匠計劃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한국미술사학회

남지진, 2008, 「감은사지 삼층석탑 구조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7-3, 한국건축역사학회

골굴사

丁時翰 신대현 번역 주석, 2005, 『산중일기』, 도서출판 해안

김환대, 2010, 『경주의 불교유적』, 한국학술정보(주)

강석근, 2016, 「골굴사의 선무도 문화콘텐츠 활용 현황과 발전방안」, 『韓國思想과 文化』 84, 한국사상문화학회

기림사

韓相吉, 1998, 「祇林寺의 歷史와 思想」, 『佛敎美術』 15, 동국대학교 박물관

우리사찰답사회, 2005, 『(경상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 불국사·기림사·골굴사』, 문예마당

강석근, 2013, 「기림사 오색화의 연원과 그 문화적 의미」, 『新羅文化』 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강석근, 이창식, 2013, 「경주 기림사(祇林寺)의 오종수(五種水)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6, 역사문화학회

30) 우리사찰답사회, 위의 책, 153쪽

31) 우리사찰답사회, 위의 책, 117쪽.

국립경주박물관

- | | |
|---------------|---------------------|
| 1. 개관 / 74 | 2. 박물관 뜰의 유물들 / 74 |
| 3. 신라역사관 / 77 | 4. 신라미술관-미륵삼존불 / 77 |

1. 개관

국립경주박물관은 1945년 당시 동부동에서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출범하였다. 이전에도 경주에는 경주고적보존회라는 단체가 1913년에 개관한 박물관 형태의 진열관이 있었는데, 이 전시관은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으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1945년 서울에서 국립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되자 이 전시관을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바꿨다. 1975년 7월 인왕동에 새로 건물을 짓고 이전했고,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개편, 승격되었다.

1975년의 새 건물은 본관, 별관, 그리고 성덕대왕신종을 위한 종각으로 구성되었다. 1982년에는 안압지 출토품 전시를 위한 제2별관이 지어졌고, 2002년에는 전시와 더불어 박물관 교육과 연구 관리 공간으로 이용되는 미술관이 신축되었다. 고고관, 미술관, 안압지관의 상설전시관 3동과 특별전시관 1동, 야외전시실에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연구 사업으로 매년 발굴 조사를 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된 진귀한 유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답사에서 특히 눈여겨 볼만한 11개의 유물을 전시장소별로 소개한다.

2. 박물관 뜰의 유물들

국립경주박물관 뜰에는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1,100점 이상의 석조품이 있다. 주로 범종, 석탑, 석불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물로 성덕대왕 신종, 고선

사지 삼층석탑, 페르시아 문양석을 꼽아보고자 한다.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은 소위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과학적 설계를 통해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와 장엄한 크기가 특징이다. 다음으로 고신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석탑양식의 시조 격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문양석은 신라와 서역의 교역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1) 성덕대왕 신종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신종은 771년 완성된 것으로, 무게가 18.9톤, 하부 구경이 222.7cm, 높이가 366cm로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이다.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혜공왕에 의해 완성되었다. 종 몸체는 곡선미가 뛰어나며 조각과 문양이 아름답다고 평가받는다. 종의 상단부 용뉴(龍鈕, 종을 종각에 거는 부위)는 용의 머리와 허리로 조형되어 있고, 꼬리 모양의 음통이 종의 상부 덮개인 천판 위에 부착되어 있다. 종의 당좌(撞座, 종을 치는 자리)는 원형의 연꽃 문양이 수 놓여 있고, 비천상(飛天像)이 장식되어 있다. 종의 하단부에는 띠 모양의 섬세한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종 곳곳에 있는 문양들은 요철의 높고 낮음이 크지 않으면서도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문양과 조각은 종 음향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¹⁾

성덕대왕신종은 당시 신라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 4년에 상대등에 임명된 김사인(金思仁)이 경덕왕권에 반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김사인은 태종 무열왕의 후손으로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²⁾ 이 같은 인물이 왕권에 반발하였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폭넓은 귀족층의 반발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덕왕의 성덕대왕신종 주조는 성덕왕대의 전제적 왕권을 자신이 계속해서 실현하겠다는 일종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을 완성하지 못하고 경덕왕의 아들 혜공왕에게 완성의 임무가 이어진 것을 보면, 경덕왕 시기 진골귀족들의 왕권에 대한 전면적인 반발이 강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종은 본래 효성왕이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봉덕사에 걸렸다가, 1460년 근처 영묘사로 이전되었다. 이후 절이 수몰되자 부근에 종각을 짓고 보존하던 것을 1915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한때, 봉덕사에 위치하여 ‘봉덕사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참고로 이 종소리는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와 같다 하여 ‘에밀레종’이라는 속칭을

1) 이장무, 1998, 「성덕대왕신종」, 『한국사 시민강좌』 23, 일조각, 166~169쪽.

2) 『三國史記』 권9 景德王 15년에 대한 기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한다. ‘春二月 上大等金思仁 以比年災異屢見 上疎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가지고 있다. 설화에 따르면 종을 만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하여 아이를 넣었다고 하는데, 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사람의 뼈에 있는 인이 검출되지 않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2) 고선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38호인 고선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전형 석탑의 시원으로 거론된다. 감은사지 석탑과 주로 비교되는데 고선사지 석탑의 1층 탑신에 문비 조각이 있다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비교되는 점이 없을 정도로 양식이나 규모가 동일하다. 삼국시대의 탑을 중심으로 한 1탑식의 가람배치와 달리 통일신라시대로 들어오면, 불상의 중요도가 높아져 금당을 중심으로 하는 쌍탑식의 가람배치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통일신라 초기에 창건된 고선사는 탑과 금당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두어 탑원(塔院)과 금당원(金堂院)을 나란히 배치한 가람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고선사지 삼층석탑에서는 가람배치의 과도기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1층 탑신에 문비가 새겨져 있으며, 과거에는 문비에 금동판이 장식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기단(基壇)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쌓아 놓은 모습이다. 기단은 여러 개의 돌로 구성하였으며, 각 면에는 기둥 모양을 새겨 놓았다. 여러 개의 돌을 짜 맞추어 탑신을 구성하였지만 3층 몸돌만은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사리를 넣어두기 위한 장치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고선사는 원효가 머물렀던 절이다. 1914년 고선사탑 주변에서 원효대사 비석인 서당화상비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삼국유사』에 전하는 원효 설화에 신빙성을 더한다.³⁾

3) 페르시아 문양석 (사자·공작무늬석)

페르시아 문양석(사자·공작무늬 돌)이라고 전해지는 이 유물은 통일신라와 서역(아라비아) 사이의 교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이다. 긴 화강암에 크고 작은 세 개의 원이 조각되어 있다. 맨 오른쪽 원에는 사자, 가운데 원은 구슬무늬 띠를 두르고 공작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가장 왼쪽의 원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완성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사자와 공작을 새겨 넣은 조각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므로 당시 신라가 국내외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나라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유물이다.

3) 『삼국유사』 권4 의해5, 사복불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사복이라는 자가 원효를 찾아와 암소를 함께 장사지내길 요청했다. 원효는 다음과 같이 빌었다. “세상에 나지 말 것이니, 그 죽는 것이 괴로우니라. 죽지 말 것이니 세상에 나는 것이 괴로우니라.” 사복이 번거롭다고 말하자, 원효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로우니라.”라고 고쳐 말했다.

이는 이슬람 학자
이븐 후르다드베
(Ibn
Khurdādhbeh,
820?~912?)의
저서 『도로와 왕
국 총람』에, “중
국의 저쪽 끝수의



페르시아 문양석

맞은편에 산이 많고 왕이 많은 한 나라가 있는데, 신라라 불린다. 그곳은 금이 풍부하다. 그곳에 간 무슬림들은 좋은 환경에 매료되어 영구 정착해 버리곤 한다.” 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최민수)

3. 신라 역사관

1) 신라 금관

신라 시기의 유물들은 금제품이 많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중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신라금관(新羅金冠)이다. 현재 전 세계에 현존하는 금관은 불과 10점뿐이며 그 중 한 국에서 현존하는 금관이 8점, 특히 신라 시기의 금관은 6점이다. 그중에서 5점의 금관은 황남대총북분 금관(皇南大塚北墳 金冠: 국보 제19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금관총 금관(金冠塚 金冠: 국보 제87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서봉총 금관(瑞鳳塚 金冠: 보물 제339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금령총 금관(金鈴塚 金冠: 보물 제33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천마총 금관(天馬塚 金冠: 국보 제188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으로 출토지가 확실하며, 다른 1점은 교동의 폐고분에서 도굴된 뒤 발견된 교동금관(校洞金冠)이다.

6점의 금관은 모두 5~6세기에 제작되었다는 점(교동금관→황남대총북분 금관→금관총 금관→서봉총 금관→천마총 금관→금령총 금관 순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과 관테 위에 나뭇가지 모양 장식 3개, 사슴뿔모양 장식 2개의 5개의 장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⁴⁾ 금관의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했다는 의견과 금관에 있는 장신구들의 무게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장품용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금관을 누가 착용했는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란에 휩싸여있다. 금관에 대한 정보는 발굴 당시의

4) 교동금관의 경우 나뭇가지 모양 장식이 3개가 있으나 사슴뿔모양 장식이 없다.

줄속 발굴과 도굴 등으로 인하여 제작 시기부터 용도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신라 지도층이 큰 무덤이나 금관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임신서기석

신라사를 연구할 때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과 같은 문헌자료들이 중요하지만 부족함이 있다. 다행히 경주(慶州)는 물론 영역권인 울산(蔚山), 단양(丹陽), 충주(忠州) 등에서 신라 시기의 금석문(金石文)들이 발견되어 문헌자료만으로 알기 사실을 알려준다. 임신서기석은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나 단양적성비(丹陽赤城碑)와 같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금석문은 아니지만 신라 청년들의 약속이 담겨 있어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1934년 경주 석장동(錫杖洞)에서 발견되어 현재 보물 1411호로 지정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전시 중이다.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평편한 넷돌로 길이는 31cm, 너비는 윗부분이 12.5cm로 아래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①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 ② 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③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 ④ 行誓之 又別先辛未年 七月廿二日 大誓 ⑤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며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동안 충도를 집지하고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지는 것이라 맹세한다. 만일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모름지기 충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 따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시, 상서, 예기, 춘추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하되 3년으로써 하였다).⁵⁾

임신(壬申)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임신년(壬申年)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렇기에 종래에는 국학의 중요한 과목들인 상서, 예기 등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국학 설치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한 651년(진덕여왕 5)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후의 임신년에 해당하는 672년(문무왕 12), 732년(성덕왕 31), 792년(원성왕 8) 등으로 추정하였는데 최근 국립경주박물관 이용현 학예연구사는 ‘맹서하기를 … 라고 맹서한다’라는 서술어 반복 문체가 6세기 때 신라 금석문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임신년의 연대를 552년(진흥왕 13)으로 특정했다⁶⁾고

5) 국립경주박물관, 2009, 『국립경주박물관(도록)』, 133쪽.

6) "국립경주박물관, 임신서기석 연대는 552년", <경북일보>, 2017년 1월 24일 17시 38분.

주장하며 건립연대를 552년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남북국시대(南北國時代) 전후로 후대의 고려(高麗)·조선(朝鮮)만큼은 아니지만 ‘충(忠)’을 실천하고, 유교 경전을 공부겠다는 의지를 통해 유교(儒敎)가 신라인들의 삶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지만, 임신서기석의 표기를 통해 신라의 표기법을 대략이나마 유추할 수 있다. (울산대 사학 12 장지훈)

3) 유리공예품들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는 유리 제품들은 신라에서 생산된 것도 있지만, 서역과의 교역을 통해 수입한 제품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수입된 유리 제품들은 당시의 신라가 만들 수 있었던 유리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제작 수법을 보이며, 손상된 부분을 금실로 동여매는 등⁷⁾ 금보다 귀한 취급을 받기도 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유리 제품 중에는 서역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잔과 상감 유리 목걸이가 있다.

황남대총 북분 유리잔과 천마총 유리잔



황남대총 북분 유리잔과 천마총 유리잔

황남대총 북분 유리잔은 미추왕릉 지구의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후, 보물 제624호로 지정되었다. 황남대총은 2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표주박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이 중 북쪽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높이 7cm, 구연부(口緣部) 지름 10.5cm로 구연부 부분은 수평이 되도록 넓게 바깥쪽으로 벌어졌고, 몸통 부분은 밥그릇 모양으로 밑이 약간 넓어진다. 아랫부분에는 우뚝한 받침이 있는데, 짧은 목에 이어지는 나팔형의 굽이 달렸다. 유리는 투명한 양질이고 갈색으로 전체에 걸쳐 나뭇결무늬⁸⁾가 있다. 받침 바닥에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것 외에는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193호의 봉수형 유리병.

8)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의 설명에는 물결무늬라고 서술되어 있다. 위 서술의 출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물 제620호인 천마총 유리잔은 천마총 부장곽에서 다른 유리제 굽다리잔과 함께 출토된 2점의 유리잔 중 하나이다. 다른 한 점이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깨진 것에 비해 이 잔은 전혀 깨지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높이 7.4cm, 구연부 지름 7.8cm의 크기이다. 청색의 투명한 유리제로서 기포가 보이지 않고 구연부 부분 등에서 약간 은화(銀化)된 부분이 있을 뿐 높은 제작기술을 보여준다. 구연부는 약간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전체 형태는 U자형을 이룬다. 바닥은 원에 가까우나 닿는 자리만 안으로 불규칙하게 눌러서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표면 무늬로는 윗부분에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굵은 세로 선을 그어 돌리고 그 밑으로는 바닥만 제외하고 일정하지 않은 원형 무늬가 연속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깎아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굳어지기 전에 눌러서 만든 것이다.

삼국시대의 고분에서는 다양한 유리제품들이 출토되는데, 신라의 고분들에서는 작은 구슬들과 곱은옥, 최고급 유리그릇들이 많이 발견된다. 신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했지만, 유리그릇들의 상당수는 중앙아시아나 중국을 통해 들어온 수입품으로 보인다. 황남대총 북분 유리잔은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견된 유리제품과 비교할 때, 그 특이한 제작수법에서 신라 제품이 아니라 서역의 제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천마총 유리잔과 유사한 형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러시아에서부터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동시기 유적에서 비교적 많이 출토되고 있어 생산지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감유리목걸이

남동 미추왕릉지구의 C지구 제4호분 무덤 주인의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목걸이로, 보물 제634호에 지정되었다. 길이는 24cm이고 주목할 만한 상감유리옥의 지름은 1.8cm이다. 마노제의 곱은옥, 다면옥, 둥근옥, 벽옥제의 대롱옥, 수정제의 대추옥, 유리제의 둥근옥이 하나의 줄에 묶여 있다.

옥 제품은 신라 무덤에서 자주 출토되는 편이지만, 상감유리환옥



상감유리목걸이와 상감유리환옥

은 처음 출토되었다. 이 구슬의 표면에는 파랑, 노랑, 빨강, 흰색의 색유리로 사람의 흉상, 오리, 꽃나무 무늬 등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상감된 얼굴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과는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구슬에 흉상형의 인물 무늬가 있는 경우는 현재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 예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얼굴만을 상감한 예는 1~2세기경의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리옥의 제작지가 어느 곳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중해 부근에서 제작되어 다른 유리제품들과 함께 신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16 민지홍)

4) 토우

고대인들은 영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에 자신들의 물건과 노비들을 함께 묻는 순장을 했는데,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하자



토우 장식항아리와 일부를 확대한 모습

부장용 토우로 순장을 대신했다. 순장에서 보이는 내세(來世)에 대한 신앙은 사후생활이 생존 당시의 생활의 연속이라는 그들의 신앙관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토우에는 죽은 자에 대한 부장품의 성격이 있다.⁹⁾ 신라의 토우는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신라의 음악, 무용, 가면 등 다양한 기예를 표현한 토우, 적나라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성 관련 남녀 인물상, 여러 종류의 동물을 상징한 토우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졌다. 우선 다양한 기예를 표현한 토우의 경우 무덤의 부장품으로서 고구려의 고분벽화처럼 장송 의례와 관련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적나라하고 과장되게 표현한 성 관련 남녀 인물상,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의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여성상, 남녀가 결합 중인 남녀상, 남자의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남자상 등은 신라인들의 다산, 풍요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여성기가 상징하는 생명력, 곧 생명체의 탄생에 대한 신비감과 남성기가 상징하는 끊임없이 재생되는 생동력에 대한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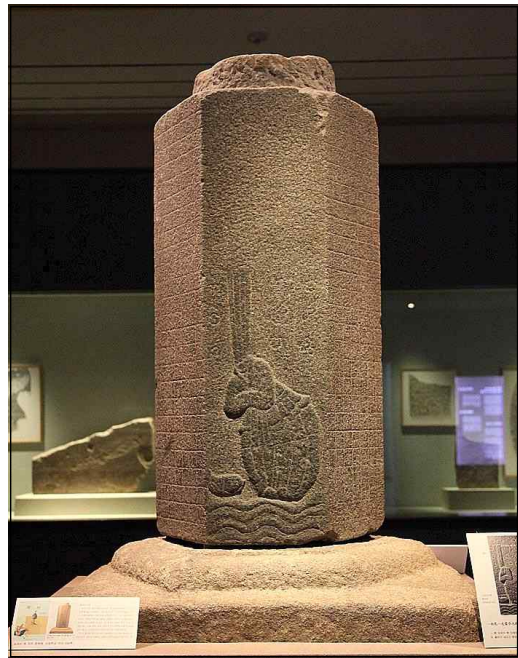
9) 염미란, 1996, 「新羅 土偶에 관한 研究 I」, 『關大論文集』 24-1, 관동대학교를 주로 참고하였음.

감은 성을 숭배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부장품으로서의 성애상(性愛像)은 성 결합을 통한 새로운 탄생을 기원하고 그러한 과정을 모의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토우는 신라의 문화, 생활,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물이다.¹⁰⁾

앞의 사진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경주 계림로 30호분에서 출토된 국보 195호 토우장식장경호이다. 장경호란 목이 그릇 높이의 1/5 이상 되는 삼국시대의 토기 항아리인데, 이 장경호의 어깨 부분과 목 부분에는 다양한 토우가 붙어 있고, 토우의 종류는 물고기, 토끼, 남녀가 성교하려는 장면, 임신한 여인이 신라금(新羅琴)을 연주하는 모양, 거북이, 오리, 성기를 강조한 남자상 등이 있다.¹¹⁾ 이 장경호를 관람하면서 신라인들의 죽음에 관한 인식과 각각의 토우가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6 조영우)

5) 이차돈순교비(異次頓殉敎碑)

이차돈순교비는 신라의 불교 공인을 위해 희생한 이차돈을 기리기 위해 9세기 초 백률사(栢栗寺)에 세워진 비석이다. 불교 공인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자료로, 공식 명칭은 백률사석당기(栢栗寺石幢記)이며, 이차돈순교비 혹은 이차돈공양당(異次頓供養幢)으로도 불린다.¹²⁾ 20세기 초 백률사에서 수습되어 경주 고적보존회로 옮겨졌고, 1929년 이관되어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 내에 신라미술관 제3전시실에 있다. 높이 106cm, 너비 29cm의 육각기둥 모양 비석으로, 제1면에서 제5면까지에는 문자로 이차돈의 순교 사건을, 제6면에는 처형 당시의 기적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물관에는 제6면을 정면에 보이도록 배치하였다.



이차돈순교비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문자와 그림 매체로 각각 표현한 것이 이차돈순교비의 특징이다.

10) 이 부분은 천진기, 1998, 「신라 토우에 나타난 신라속(新羅俗) 연구」, 『민속학연구』 5를 주로 참고하였음.

11) 손명순, 2001, 「신라토우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하 : 국보 제 195 호 장경곤 토우의 상징해석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24, 경북사학회, 214쪽.

12)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이차돈순교비로 명칭을 소개하고 있어 이를 따른다.

두 자료에서는 참수 당시 땅이 흔들리고 배인 목에서 피가 솟구치고 꽃비가 내리는 모습이 같이 묘사되어 있다. 반면 차이점도 존재한다. 문자자료에 나타난 이차돈은 관을 벗고 손이 뒤로 묶인 죄인의 모습이 부각되었다면, 그림 자료에서 표현된 이차돈은 관을 쓰고 있고 손을 앞으로 공수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 이유는 매체의 특성에 있다. 비석 건립 당시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식자층은 극소수뿐이었다. 따라서 이차돈의 순교와 그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림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신라 불교가 더욱 발전하며 단 하나의 장면으로 종교적 기적을 더욱 극적으로 미화하여 그려낸 것이다. 오늘날 제6면이 정면인 이유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일 것이다.¹³⁾

이차돈순교비의 건립 배경은 4~6세기 급격히 성장하는 신라 사회와 국내외적 불교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4세기 이후 신라는 농업과 상업이 발전하였고 영토를 확장하며 대규모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에 국가를 정비할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지만, 당시 신라 지배층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무교(巫敎, 샤머니즘)는 혈연적·지역적 배타성을 띠어 적절하지 않았다. 반면 불교는 더욱 보편적 성격을 지녔고, 마침 당시 교류하던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불교를 사적·공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국왕이 불교의 합법화를 주장했지만, 기존의 대다수 지배 세력이 반대하였고 이차돈의 순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¹⁴⁾

이차돈의 순교는 불교를 공인하려는 국왕 중심의 소수 세력과 대다수 반대파 간에 있었던 정치적 갈등의 희생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과 토착 신앙과의 사상적 갈등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차돈은 불교의 공인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무교의 성지인 천경림(天敬林)에 있는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흥륜사(興輪寺)를 건립하려 하였다. 이에 귀족 세력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차돈이 그 책임을 지고 사형에 처해진 것이다.¹⁵⁾ 그러나 신라는 결국 이차돈의 죽음 8년 후인 535년 불교를 공인하였다. 국제적으로 불교가 동아시아의 지배 문화로 작용하고 있었고 신라 사회 역시 계속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신라의 불교 공인은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였을 것이다.

신라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차돈의 순교는 점점 신화화되었다. 그를 기리는 추모 사업이 전개되며 그의 무덤 자리에는 자추사(刺楸寺, 지금의 백률사)가 세워졌다. 8세기 말의 신라 격동기 이후 그 움직임이 격화되었는데, 이차돈순교비가 건립된 것도 이 시기이다. 당

13) 한국역사연구회, 2017, 「이차돈의 순교, 역사에서 신화로」, 『한국 고대사 산책』, 역사비평사, 216~217쪽.

14) 한국역사연구회, 위의 책, 218~220쪽을 참고함.

15) 최광식, 2007,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55~256쪽.

시 교단의 영수 혜룡(惠隆)을 비롯한 고위 승려와 귀족들이 이차돈의 기일에 건립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차돈순교비는 단순히 이차돈이 순교하며 남긴 종교적 기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차돈순교비는 당시 신라 사회 및 불교 발전의 흐름과, 그 안에서 대내외적, 정치적·사상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된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13 김초해)

6) 남산신성비

남산신성(南山新城)은 진평왕 13년인 591년에 축조된 성곽이다. 외세로부터 경주 월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지배질서를 과시하기 위해 건립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산신성비는 1934년에 발견된 제1 비(碑)를 시작으로 2010년에 발견된 제10 비(碑)까지 일컫는 말이다. 이 10개의 비들은 남산신성의 축조와 관련해 역역동원(力役動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 2, 3, 9 비와 같이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것이 있는가 하면, 제4,5,7 비처럼 일부가 소실된 채로 존재하기도 한다.

비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완형의 것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높이가 1미터 내외, 너비가 30~40cm 정도의 화강암재이다. 글씨는 육조시대(六朝時代)에 유행한 해서체(楷書體)이다. 남산신성비들은 성 안과 성 밖에서 발견되었는데, 학자들은 성 밖에서 발견된 비석에 대해 쓰임이 다한 후 옮겨진 것이 아니라고 추측한다. 남산신성비는 모두 신해년(辛亥年)이라는 간지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남산신성비에 축조 시기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사들을 통해서도 591년임을 알 수 있다.

남산신성비가 여러 개인 것은 당해 분단에 주어진 담당 구간의 작업을 완료하고 책임자의 이름을 새긴 뒤 비를 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산신성의 전체 길이는 대략 2,850보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평균 축성 거리로 나누면 분단이 대략 200여개 정도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에 지금까지 10개의 비가 발견되었지만, 학자들은 앞으로 남산신성비가 더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순차적으로 발견된 비들을 ‘남산신성비’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발견된 지역과 담고 있는 내용의 유사성 때문이다. 각 비는 서술 순서라던가 사용된 단어 등에 있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행의 수와 전체 글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겨지는 제1, 2 비가 남산신성비의 전형적인 형태로 여겨진다. 제8 비의 경우, 겨우 한 행만이 남아있다.

남산신성비들이 대체로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축성 기준 시점, 축성 대상의 명칭 그리고 맹서가 적혀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성 공사에 참여한 관리들의 직명과 인명 그리고 동원된 사람들과 지역 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구

획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3 비의 경우 남산신성비 가운데서 수직 거리가 가장 긴데, 이는 지형의 난이도에 따른 분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산신성비의 앞부분에는 ‘완공된 성벽이 3년 이내에 무너진다면 죄를 받는다.’는 맹서가 적혀 있다. 주보돈은 이를 축성에 동원된 사람들과 왕과의 직접적인 맹서로 파악하였다. 남산신성이 축조되던 시기는 법흥왕 때보다 지방관이 파견된 촌(村)이 3배나 증가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 비문을 통해서도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와 관련해 남산신성 축조를 지방에 대한 지배를 원활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시행된 공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남산신성비는 당대의 촌락구조와 역역동원체제(力役動員體制),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남산신성비를 통해 신라 중고에는 주(州), 군(郡), 촌(村)의 3단계 지방 행정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주(軍主), 도사(道使)와 같은 명칭에서 지방관이 행정적 성격보다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촌주(村主)가 지방통치에 있어 중앙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던 지방관과 촌락민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했을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추정되는 여러 직명(職名)도 확인된다. (13 강혜운)

4. 신라 미술관 - 미륵삼존불



미륵 삼존불은 답사 2일 차에 올랐던 남산의 장창골에서 옮겨온 것으로, 신라 시대 사람들의 불교적 세계관과 신라인들의 석조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불상이다. 본존상(중앙에 위치한 불상)으로 미륵불, 좌우 양쪽으로 협시보살(양쪽에 있는 상)이 있는 모양이다. 미륵불로 추정되는 본존상은 의자에 앉은 자세를 하고 있고, 양쪽에 있는 협시보살들은 크기가 작아서 아기 부처라고도 부른다. 이 본존상이 미륵불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본존상의 자세가 앉아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6-7세기 중국의 불상 중 의자에 앉은 모양의 본존상이 미륵불이었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상과 관련됨직한 일연(一然)의 『삼국유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설화들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도중사(道中寺)에 머물던 생의(生義)라는 스님이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웬 스님이 그를 끌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매듭으로 표시한 뒤 “내가 이곳에 묻혔으니 나를 파내어 고개 위에 두소서” 라고 말했다. 꿈에서 깬 생의가 친구들과 남산에 올라가 땅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오므로, 이를 삼화령(三花嶺) 고개 위에 두었다고 한다. 또 다음과 같은 기록도 전하고 있다. 삼화령 고개의 미륵불에게 차를 공양하던 충담사(忠談寺)에 대한 이야기로, 경덕왕(742-765)이 삼월 삼진날에 귀정문(歸政門) 앞에 나와 앉아 시종들에게 “훌륭하게 차린 스님을 데려오라” 고 시켰다. 주위에서 깨끗한 차림을 한 스님을 데려왔으나, 왕은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다” 고 했다. 결국, 왕은 남루한 옷차림에 벗나무로 만든 통을 진 스님을 찾아서 맞이했는데 그가 충담이었다. 충담은 일찍 ‘기파랑’ 이라는 화랑을 찬미하는 향가를 지어 이름이 알려진 스님이었다. 그는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차를 달여 공양했는데, 그 날도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왕은 충담에게 청하여 차를 한 잔 마신 뒤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노래’ 를 지을 것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하여 충담이 지은 향가가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는 안민가(安民歌)였다.¹⁶⁾

그러나 『삼국유사』로부터의 추정은 설화에 등장하는 삼화령을 남산신성 북쪽으로 보았을 때 성립하지만, 삼화령의 위치를 이보다 훨씬 남쪽의 대연화대좌가 있는 곳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만약 후자라면 경주박물관에 전시된 이 석불들은 설화와 무관한 것이 된다. 이러한 미륵삼존불은 아주 단단한 재질로 알려진 화강암을 깎아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미륵삼존불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신라인들의 석조기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 권현의)

16) 하일식, 위의 책, 66~68쪽.

[국립경주박물관 참고문헌]

- 이종욱, 1975,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동원, 1993, 「新羅 中古 金石文 研究」, 『國史館論叢』 42, 국사편찬위원회
- 염미란, 1996, 「新羅 土偶에 관한 研究 I」, 『關大論文集』 24-1, 관동대학교
- 이장무, 1998, 「성덕대왕신중」, 『한국사 시민강좌』 23, 일조각
- 천진기, 1998, 「신라 토우에 나타난 신라속(新羅俗) 연구」, 『민속학연구』 5, 국립민속박물관
- 하일식, 2000, 『경주역사기행』, 아이북닷컴스토어
- 손명순, 2001, 「신라토우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하 : 국보 제 195 호 장경근 토우의 상징해석을 중심으로」, 『복원사림』 24, 경북사학회
- 강우방 외, 2003, 『불교 조각1-한국미의 재발견3』, 서울출판사
- 이영훈, 2005, 『한국 미의 재발견 - 고분미술2』, 서울출판사
- 국립경주박물관, 2009. 『국립경주박물관(도록)』, 통천문화사
- 김창호, 2009, 『삼국시대 금석문 연구』, 서경문화사
- 경주시 문화재과, 2010, 『경주 남산신성』, 경상북도
- 유홍준, 2011, 『유홍준의 국보순례』, 놀와
- 장일규, 2016,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우리 문화유산 1001』, 마로니에북스
- 한국역사연구회, 2017, 『한국 고대사 산책』, 역사비평사

참고기사

- 김정철, 〈경상매일신보〉, “‘임신서기석’ 제작연대 552년 입증”, 2017.1.25.
- 김용운, 〈이데일리〉, “문체로 분석한 '임신서기석' 이두 활용 1세기 앞당기냐”, 2017.1.24.
- 황기환, 〈경북일보〉, “국립경주박물관, 임신서기석 연대는 552년”, 2017.1.24.

